

건축 · 도시공간관련 연구과제 수요조사 연구

A Study on the Demand for Architectural and Urban Research

오성훈 Oh, Sung Hoon  
성은영 Seong, Eun Young

( a u r i

## 연구진

---

연구책임 | 오성훈 • 부연구위원

연구진 | 성은영 • 연구원



# 연구요약

## 1. 서론

최근 해외 건축·도시공간의 산업화, 명소화 사례들을 통해 좋은 건축·도시공간이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의 원천이 되는 것은 물론 나라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의 구축에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 디자인 및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통해 지역을 명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축·도시공간의 조성으로 나라의 경쟁력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 환경의 정비와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통해 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가 품격과 품질 양 면에서 문화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반 연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싱크탱크(think-tank)의 기능이 필요하여 2007년 6월에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건축문화를 개선하는 등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고 보급·확산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도시디자인 역량강화에 기여할 사명이 있다. 2007년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설립 초년도로서,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의 방향과 분야를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점과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건축도시공간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연구수요를 전망하여, 좁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향후 수행할 과제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넓게는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구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2. 건축 · 도시공간 분야 연구영역

연구자료의 분석에서 주제의 분류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일반적인 명칭에 의하여 우리는 분류를 창조한다”는 밀(J.S.Mill)의 언급은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되었으며, 현상에 대한 분류는 모든 과학에서 최초로 행해지는 기본적인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이 사는 공간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수요를 살펴본다. 공간관련 전 분야는 연구범역이 광대하여 분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공간은 인간의 정주공간으로 한정하고 그 중 공간의 질과 문화에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련한 연구는 독시아디스(Doxiadis)의 주장처럼 전체를 하나로 느끼게 해주는 도시영역의 기본요소로서 건축이 기계의 도움없이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단위로서의 인간 섹터(human sector)를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공간의 질과 건축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간의 질은 그 의미와 구성요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공간의 질을 고려한 연구영역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질의 좋고 나쁨에 관한 부분은 개인적 견해차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거시적인 질은 공공적 접근을 통한 공간의 영역과 이웃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의 질에 접근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회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간구성요소는 역사와 문화적 환경에 대한 공간의 가치, 이웃과의 관계, 보행자(인간) 중심의 설계, 다양성에 대한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연구 할 분야는 건축도시환경의 공공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건축도시 디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책 수립 및 건축도시공간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연구이다. 이렇게 기존 연구 영역과 공간의 질을 고려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영역을 검토 · 종합하여,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의 연구영역과 방향을 설정하고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구 분야와 방향 제시를 위한 기준으로서 1)공적 공간, 2)공간 환경의 질, 3)공간의 가치특성, 4)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 5)설계 기법 및 제도 개선을 정하였다.

### 3. 건축·도시공간 분야 연구동향

건축도시공간 계획 관련 대표 학회의 논문집에 수록된 연구논문들을 주제와 대상 그리고 공간규모 면에서 검토·분석하여 도출한, 최근 5년(2003년~2007년)간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공간관련 연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연구주제의 스펙트럼이 다양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과 주거단지에 대한 공간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공간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즉 이용주체나 공간구현의 시장논리 같은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건축물을 중심의 건조환경에 대한 연구들이 중심이 되었던 대한건축학회의 논문들의 대상공간이 단지와 지구, 도시공간의 건조환경까지 확대되었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지역과 국토 차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3개 학회의 연구대상 공간이 단지와 지구를 중심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간의 질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 공적 공간, 2) 공간의 가치특성, 3) 공간 환경의 질, 4)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 5) 설계기법 및 제도적 수단에 대한 연구동향도 살펴보았다. 삶의 질과 관련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간의 질과 관련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공간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공간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 연구주제들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공간관련 연구에 있어 공간의 질을 고려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공간의 가치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한 연구는, 물리적 공간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데 단시간에 적용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기초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공간의 가치특성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 기반을 형성하는 연구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원, 광장, 거리 등 공적 공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설계기법이 나 제도적 대안 등 실천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적공간에 대한 계획 및 설계기법, 그리고 정책 및 제도적 대안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그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탐구도 필요하다.

셋째, 공간의 질이라는 정성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표 등을 통한 정량적 분석보다는 각 주제와 가치 특성에 대한 면밀한 정성적인 탐구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 4. 건축·도시공간 관련 연구수요 조사

본 장에서는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연구수요에 대한 조사의 응답결과에 대한 분석을 공간 규모별 분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주요 주제범주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기존의 연구와의 차이점 및 각 주제범주간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간규모별 분류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정 공간규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제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의 관심대상이 개별적인 공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스케일의 공간에 걸치는 통합적인 이론, 제도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동향에 비해서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주제의 비중이 50% 가까이 높아진 점, 그리고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제안자들의 공간적 범주가 건물/구조물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동향에 비해 100% 이상 증가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시점에서 공간에서의 가치논의가 필요함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주제의 경우, 공간의 범주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와 도시규모의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주제가 많았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다 집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검토하는 연구의 비중도 기존 연구동향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기존 연구동향에 비해 공간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련된 연구주제가 대폭 증가된 비중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최근의 건축기본법과 연관된 개별건축물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기조를 같이하는 흐름이라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통합적인 도시개발 및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결론

주요 주제범주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들은 공적인 공간자체에 대한 정의와, 공적인 공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원론적인 공공공간론에 대한 연구는 제시되지 않고, 여타 분야와의 접속점을 찾는 주제가 주로 제시었다.

둘째,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주제들 역시 공간의 가치 문제와 함께 제안되었는데,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으며, 계획 및 설계기법과 관련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환경의 질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를 넘어, 사회문화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맥락에 대한 지역연구 및 공간연구가 필수적이므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주제는 이전 연구동향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나 계획 및 설계기법과의 관련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간의 가치에 대한 더 원론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제안들은 전체 연구주제의 절반이 넘는 정도이며 사회문화적 맥락,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연구범주와 관련되어 연구주제가 제안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도출할 수 있는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고려할 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공간의 스케일에 한정되지 않는 통합적인 도시공간의 구축방안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실천적인 방안을 찾는 연구에 앞서, 각 논의대상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및 문제의

정의와 그에 따른 실증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간의 가치와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는 상이한 영역의 논의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선도적 공간담론형성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넷째, 공간환경에 대한 질적인 평가연구는 단순한 물리적·기능적 평가를 넘어,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반영하는 평가로 심화·확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천단계에서는 개별사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각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며 다층적인 공간연구를 선도하고 활성화하여 공간이론의 실증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상의 분석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향후 연구과제의 방향설정 및 선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며, 각 분석결과들도 내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추후 토론 및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동향을 거칠게나마 범주화하였고, 새롭게 제시된 연구주제들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된 연구주제들의 위상을 평가하고, 연구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 본 연구는 단순한 수요조사결과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밀도있는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의 한계 등으로 해외 학술동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해외학술동향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연구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도시 분야의 실무현황에 대한 동향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향후 연구주제별 중요도에 대한 현실적 평가가 누락되어 있다. 실제 정책이나 사업 등의 전개과정을 점검하지 못해, 실무현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제를 추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추후 연구과제 수요분석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건축도시공간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주제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건축, 도시, 연구동향, 연구수요

# 차례

<b>I. 서론</b> .....	<b>2</b>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2. 연구의 목적 .....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4. 연구의 흐름 .....	6
5. 선행연구 검토 .....	6
<b>II. 건축도시공간 분야 연구영역</b> .....	<b>12</b>
1. 공간연구영역 관련 이론적 검토 .....	12
2. 기존 연구에서 분류된 공간관련 연구영역 .....	19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영역 .....	26
<b>III. 건축도시공간 분야 연구동향</b> .....	<b>30</b>
1. 개요 .....	30
2.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존 연구동향 .....	32
3. 공간의 질을 고려한 연구동향 .....	39
4. 소결 .....	46

<b>IV. 건축도시공간 관련 연구수요 조사</b> .....	<b>50</b>
1. 조사 개요 .....	50
2. 건축도시공간관련 연구수요 조사·분석 .....	51
3. 소결 .....	64
<b>V. 결론</b> .....	<b>68</b>
1. 요약 및 결론 .....	68
2. 연구의 한계 .....	72
• 참고문헌 .....	74
• 부록1. 건축도시공간 분야 연구동향 분석표(일부예시) .....	86
• 부록2. 건축도시공간 관련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 .....	88

## 표 차례

〈표 1〉 선행연구 검토 .....	8
〈표 2〉 정주영역과 계획범위에 따른 학문영역 .....	15
〈표 3〉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필요한 질적 요소들 .....	17
〈표 4〉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질(quality)를 고려한 공간구성요소 .....	18
〈표 5〉 건축·도시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분류표 .....	20
〈표 6〉 국토·도시계획분야 연구 영역의 분류 .....	22
〈표 7〉 실내건축의 연구분야 분류 .....	25
〈표 8〉 학회별 연구논문 실적(2003년~2007년) .....	31
〈표 9〉 공간규모별 학회 연구실적 .....	31
〈표 10〉 대한건축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	34
〈표 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	36
〈표 12〉 한국도시설계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	38
〈표 13〉 공적 공간에 대한 연구 .....	42
〈표 14〉 공간의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 .....	43
〈표 15〉 공간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 .....	44
〈표 16〉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 .....	45
〈표 17〉 계획 및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 .....	45
〈표 18〉 정책 및 제도적 수단 마련을 위한 연구 .....	46
〈표 19〉 공간규모별 연구분류 .....	51
〈표 20〉 공간규모별 - 공적 공간에 대한 고민 .....	52

〈표 21〉 공간의 가치특성을 고려한 연구 .....	53
〈표 22〉 공간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 .....	53
〈표 23〉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 .....	54
〈표 24〉 계획 및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 .....	55
〈표 25〉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55
〈표 26〉 공적 공간 - 공간의 가치특성 .....	56
〈표 27〉 공적 공간 - 공간환경의 질 .....	56
〈표 28〉 공적 공간 -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 .....	57
〈표 29〉 공적 공간 - 설계기법 .....	57
〈표 30〉 공적 공간에 대한 고민 - 정책/제도개선 .....	58
〈표 31〉 공간 환경의 질 - 공간의 가치특성 .....	58
〈표 32〉 공간 환경의 질 - 사회문화적 맥락 .....	59
〈표 33〉 공간 환경의 질 - 계획 및 설계기법 .....	59
〈표 34〉 공간 환경의 질 - 정책/제도개선 .....	59
〈표 35〉 공간의 가치특성 - 사회문화적 맥락 .....	60
〈표 36〉 공간의 가치특성 - 설계기법 .....	61
〈표 37〉 공간의 가치특성 - 정책/제도개선 .....	61
〈표 38〉 설계기법 - 사회문화적 맥락 .....	61
〈표 39〉 설계기법 - 정책/제도개선 .....	62
〈표 40〉 정책/제도개선 - 사회문화적 맥락 .....	62

〈표 41〉 주요 주제범주간 교차분석결과 ..... 63



## 그림 차례

〈그림 1〉 경제발전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 .....	3
〈그림 2〉 연구흐름도 .....	9
〈그림 3〉 공간관련 학문영역 .....	13
〈그림 4〉 인간의 정주공간 구성요소 .....	14
〈그림 5〉 공간관련 학문영역 범주 .....	16
〈그림 6〉 공간규모별 학회 연구실적 .....	32
〈그림 7〉 연구대상 공간규모별 연구실적(2003~2007) .....	32
〈그림 8〉 대한건축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	34
〈그림 9〉 공간의 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연구(대한건축학회) .....	35
〈그림 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	36
〈그림 11〉 공간의 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연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37
〈그림 12〉 한국도시설계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	38
〈그림 13〉 공간의 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 .....	39
〈그림 14〉 공간의 질을 고려한 연구추이 .....	39
〈그림 15〉 항목별 연구대상 공간규모 .....	40

l.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연구의 흐름
5. 선행연구 검토

#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삶과 환경, 공간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GDP순위 13위<sup>1)</sup>의 경제적 성장을 이룬데 비하여 환경과 문화분야의 발전<sup>2)</sup>이 크게 뒤쳐진 일종의 ‘환경지체(Environmental lag)’와 ‘문화지체(Cultural lag)’ 국가, 즉 경제와 환경·문화의 불균형 국가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주변 일상생활 공간의 환경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물리적 공간의 환경 및 문화의 지체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우리의 공간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양적 수요의 충족에 치중 해온 나머지, 위생성, 심미성, 쾌적성 같은 질적 측면의 문제들은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

1) 세계은행이 2007년 발표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참고  
2) 영국 머서(Mercer)사의 세계도시 생활의 질 평가에서 서울은 89위로 평가되었다.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2006)



〈그림 1〉 경제발전예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

자료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성경룡, 2006)

## 2) 우리의 건축·도시공간의 질적 문제 인식

우리의 건축·도시공간은 주택난 해소와 신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자족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sup>3)</sup> 또한, 주거지 개발의 효율성 및 비용,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존 도심정비와 재개발보다는 미개발된 택지를 개발하는 신도시 개발 위주의 공간개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환경이 열악해진 지역은 그곳이 철거 후 재개발될 때까지 방치되거나, 점적으로 개발된 신도시들은 기존 도시와 조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문제들은, 최근 실시한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sup>4)</sup>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건축·도시공간의 질이 선진국의 건축도시공간의 70% 미만의 수준이라는 공간의 질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케 했다. 즉, 우리 국민들은 우리 건축·도시공간이 건물과 도시의 부조화, 건축물과 시설물 자체의 낮은 품격, 고유의 정체성 부족,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부족, 획일적이고 경직된 제도, 인력양성 시스템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3) 기존도심 활성화 방안에서의 사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장희명 외, 2008

4) (주)글로벌 리서치에 의해 2006년 12월 7일에서 8일까지 진행된 737명의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건축도시에 대한 인식조사

### 3)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건축·도시공간의 가치 부각

해외 건축·도시공간의 산업화, 명소화 사례들을 통해 좋은 건축·도시공간이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의 원천임은 물론 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경쟁력 구축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통해 지역을 명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축·도시공간의 조성으로 나라의 경쟁력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공간 환경의 정비와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통해 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 4) 공간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도

2007년 12월,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공간의 질을 개선하고 공간을 새로운 문화의 영역으로 편입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 5)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설립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가 품격과 품질 양면에서 문화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반 연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싱크탱크(think-tank)로서 기능할 국책연구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2007년 6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중앙정부를 위한 공간관련 정책의 방향 및 시책을 제시하고, 건축도시 관련 업계의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사업환경을 조성하며,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건축문화를 개선하는 등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고 보급·확산하여 건축도시 디자인의 국가 역량 강화에 기여할 사명이 있다.

2007년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설립 초년도로서,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의 방향과 분야를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추진할 중점과제가 필요하다.

## 연구의 목적

# 2

본 연구는 우리의 건축도시공간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향후 건축·도시공간분야의 연구수요를 전망하여, 좁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향후 수행해야 할 과제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넓게는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구 분야와 방향의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좋은 건축·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학제적이고 실무적인 실천영역에서 논의토록 함으로써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 및 공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연구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과정이다.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설립 초년도 과제로서 단기간의 연구이고 향후 연구소 과제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첫 번째 연구이므로, 이러한 여건에서 연구소와 건축·도시 분야에의 유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연구내용의 범위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건축·도시 분야의 연구영역 분류는 인간의 정주공간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 건축·도시공간관련 분야의 연구동향은 이 분야의 대표적인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최근 5년간(2003~2007)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과제 수요조사는 관련 학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한다. 이들 연구동향과 수요조사는 공간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4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 관련 연구의 동향 및 향후 수요를 알아보는 연구로서 다음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공간관련 연구영역을 파악한다. 인간의 정주공간으로서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연구영역에 대하여 정주이론을 중심으로 한 공간연구 영역 분류를 살펴보고, 공간의 질과 건축문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영역을 검토한다. 이중 우리 공간의 질과 건축문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다룰 수 있는 연구영역을 검토할 요소를 도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검토요소들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건축·도시 분야의 대표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연구논문을 검토해 보고 그 동향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공간의 질과 건축문화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에 대해서 건축·도시 분야 학계, 연구계, 실무전문가 및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기존 건축·도시 분야 연구논문 중 공간의 질과 건축문화 제고와 관련한 연구동향과 전문가들의 연구수요조사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연구방향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 등을 정리한다.

## 5 선행연구 검토

건축이나 도시관련 연구의 동향이나 수요를 파악하는 연구들은, 학계나 대상 연구기관의 여건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연구의 전환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의 여건변화에 따른 연구수요를 전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한국 국토 도시계획분야의 연구경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1999)」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40주년 및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동향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로서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발간하였다. 1989년에서 1998년까지의 국토계획지 연구논문과 일본

도시계획논문집 연구논문, 그리고 미국 도시계획학회 [JAPA] 연구내용을 국토·도시계획 분야 연구영역으로 분류하여 검토한 후 국토·도시계획 분야 연구 실적 및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를 전망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의 학문적 동향과 연구발전 과제에 관한 연구(2000)」도 역시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계획의 패러다임의 흐름과 상호 연관성을 고찰하여 새로운 가치체계와 이론적 동향의 접목을 통한 향후 도시 및 지역계획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연구분야를 분류하여 검토하지 않고, 본격적인 도시 및 지역계획이 시작된 이래 변천되어 온 도시 및 지역계획의 패러다임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도시 및 지역계획의 학문적 동향과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동향 및 도시 및 지역발전의 향후 연구과제 등을 도출했다.

「AURIC연감2006(2007)」의 경우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연간 건축·도시연구 동향보고서로서, 한 해의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등 국내 학문체계에 따른 논문주제를 분류하여 건축·도시 분야의 연구주제 동향을 분석하는 연감이다. 국내 건축·도시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대상 논문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에서 검색 및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회지 및 서비스하지 않는 학회지를 포함하여 총 23개 학술지에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 사이에 게재된 1,500여 편의 논문이다. 연구논문들을 크게 건축학, 건축공학, 도시계획 분야의 논문들로 나누고 분야별로 논문의 주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개의 위계를 기본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되, 필요에 따라 소분류의 하위분류로 세 분류를 두었다. 이러한 연구주제별 분류에 따라 연구동향을 한눈에 살펴보고, 추후의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제5차(2003-2011) 중장기연구개발계획(2002)」은 주택도시연구원에 대한 R&D 차원의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유 연구영역 및 복합 연구영역 등을 설정하고 있으나, 공간을 고려한 연구영역 구분이 아니라 전략 경영, 정책개발 등 연구결과물의 성격에 따른 영역이다. 또한, 이렇게 설정된 연구개발 비전 및 전략의 추진을 위한 고유 연구과제 세부추진계획, 연구개발 투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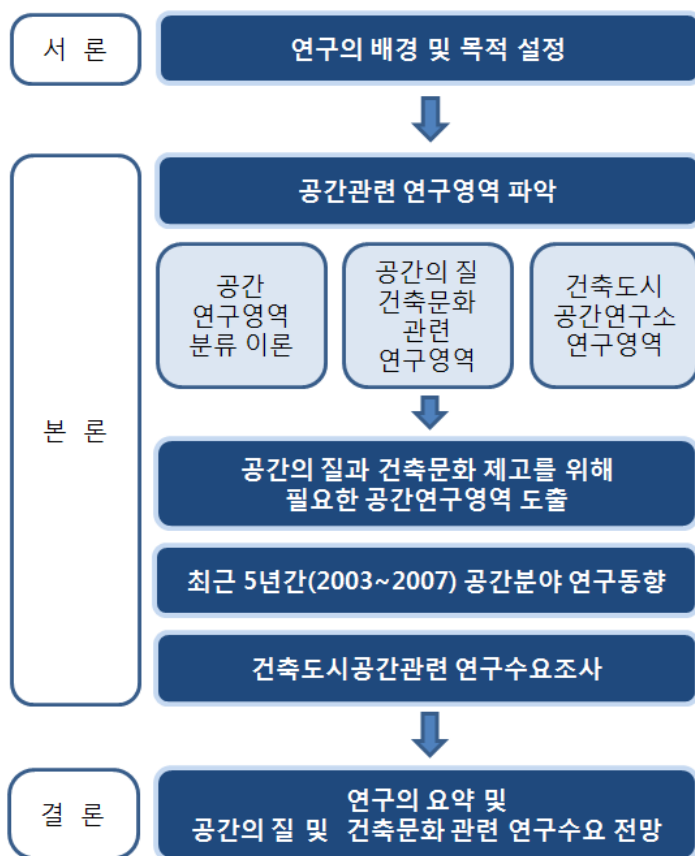
이에 비하여 본 연구는 설립 초년도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영역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서 연구소의 설립 목적 및 발전 방향에 맞추어 연구동향 및 수요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간의 질과 건축문화의 제고’라는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영역으로 검토 영역을



한정하고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특정한 여건에서 보다 심도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선행연구 검토

구분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내용
AURIC연감2006 건축도시연구동향 (AURIC,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도시분야 연구주제 동향에 관한 정보 제공</li> <li>○ 건축도시분야 연구발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2006년 국내 건축·도시분야 학술지 발표 연구논문 1,500여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등 국내 학문체계에 따른 논문주제 분류</li> <li>○ 건축도시분야 연구주제 동향 제시</li> </ul>
제5차(2003~2011) 중장기연구개발계획 (주택도시연구원,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사에 대한 R&amp;D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마스터 플랜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비전 및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 연구영역 설정</li> <li>○ 고유 연구과제 세부추진계획</li> <li>○ 연구개발 투자계획 수립</li> </ul>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의 학문적 동향과 연구발전 과제에 관한 연구 (고병호,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패러다임의 흐름과 상호 연관성 고찰</li> <li>○ 새로운 가치체계와 이론적 동향의 접목을 통한 향후 도시 및 지역계획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및 지역계획의 학문적 동향과 연구과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및 지역계획의 패러다임 변천</li> <li>○ 도시 및 지역계획의 새로운 연구동향</li> <li>○ 도시 및 지역발전의 향후 연구과제</li> </ul>
한국 국토 도시계획분야의 연구경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김윤수 외,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국토·도시계획분야 연구경향 분석</li> <li>○ 도시계획 선진 외국의 연구경향과 비교분석을 통한 향후 방향성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1998년 국토계획지 수록 연구논문</li> <li>○ 일본 도시계획논문집 수록 연구논문</li> <li>○ 미국 도시계획학회 [JAPA] 수록 연구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도시계획분야 연구영역의 분류</li> <li>○ 국토·도시계획분야 연구실적 및 동향</li> <li>○ 향후 연구전망</li> </ul>



〈그림 2〉 연구흐름도



# II.

## 건축도시공간분야 연구영역

1. 공간연구영역 관련 이론적 검토
2. 기존 연구에서 분류된 공간관련 연구영역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영역

# 건축도시공간 분야 연구영역

## 1 공간연구영역 관련 이론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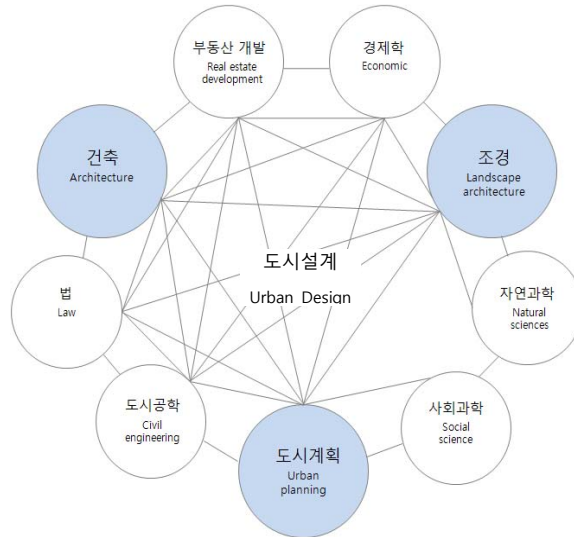
연구자료를 분석할 때 주제의 분류는 대단히 중요하다. 분류(Classification)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관계를 근거로 하여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몇 개의 부류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집단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일반적인 명칭에 의하여 우리는 분류를 창조한다”는 밀(J.S.Mill)의 언급 이후로 분류는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 언어가 되었으며, 현상에 대한 분류는 모든 과학 영역에서 최초로 행해지는 기본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sup>5)</sup> 인간이 사는 공간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수요를 살펴보려는 본 연구는 공간관련 전 분야는 연구범역이 광대하여 분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공간을 인간의 정주공간으로 한정하고 그 중 공간의 질과 문화에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1) 인간의 정주공간 관련 연구영역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간에 관한 학문 분류는, 크게 내부공간으로서의 건물에 관계하는 건축학(Architecture), 건물의 외부공간에 관계하는 조경학(Landscape architecture), 인간의 생활권에 대한 계획과 설계에 관계하는 도시학(urban planning & urban design)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물리적 공간에 관한 연구는 공간을 형성하는 사회, 문화적 메커니즘과 분리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경제학이나 자연과학, 사회과학 같은 기초 및 응용학문들과의 관

5) 한국 국토·도시계획분야의 연구경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김윤수 외, 1999

계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학문이다. 인간이 정주하는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인간을 위한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적 균형을 이루어가기 위함<sup>6)</sup>이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조성을 연구하는 학문의 영역을 정주학(Ekistics)<sup>7)</sup>으로 포괄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3〉 공간관련 학문영역

자료: T.W.Schurch(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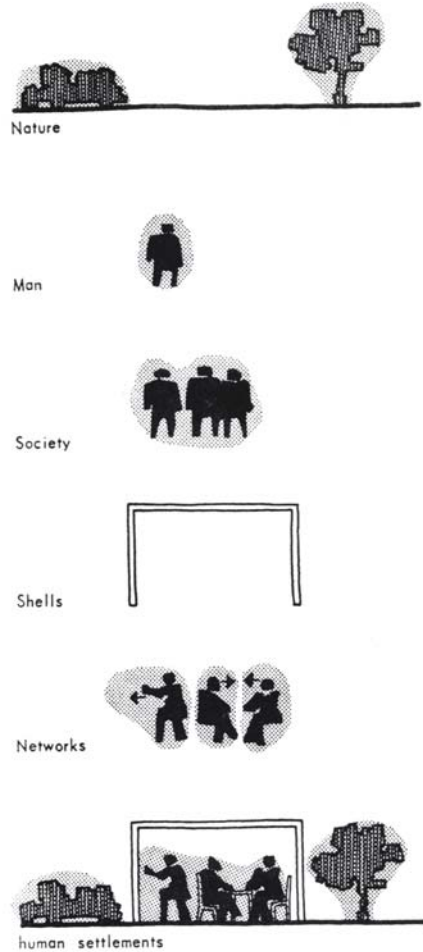
에키스틱스(Ekistics)는 ‘집(home)’과 ‘정주(settling down)’를 의미하는 그리스어로서 독시아디스가 1942년 아테네 공대의 강의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1968년 그의 저서 『Ekistics』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간 정주의 과학(science of human settlement)’으로 정의한 개념이다.

에키스틱스 이론은 인간 정주의 연구영역을 다섯 요소로 나누고 있는데 1차적 요소로 ‘Man’, 2차적 요소로 ‘Society’와 ‘Nature’를, 다시 3차적 요소로

6) Doxiadis(EKISTICS, 1968)

7) 독시아디스는 1963년 텔로스 선언에서 에키스틱스를 주장했는데 그는 같은 이름의 저서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협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Ekistician’ 들의 master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자질요건으로 지식, 신념, 경험, 창조적 의지의 네 가지를 꼽았다. 사실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수집할 능력, 그리고 인간정주의 진보, 변혁의 이해가 필요한 동시에, 개념에 대한 확신, 법칙과 이론에 대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광범위한 경험은 현상을 분석하거나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주고, 감성(feeling) 아닌 의지(willing), 사고(thinking man) 아닌 완성(complete man)이어야 한다면서 창조적 의지만이 자료가 변변치 않아도 적시에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창조적 의지는 인간 정주에 나타나는 피상적인 혼돈상태에서 어떤 의미를 찾게 해 주는 내적 질서(inner order)라는 것이다.

‘Networks’와 ‘Shells’를 들고 있다. Man은 사회와는 구별되는 개별적인 것을, Nature는 개발이나 경작을 통해서 환경이 변경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환경’이다. Networks는 도로나, 상수도, 전기 등의 정주 기능을 지탱해 주는 인위적인 체계를, Shells는 사람이 들어가 거주하거나 동물·기계·물품 등을 수납하는 구조체를, Society는 생각이 다른 집합으로 집합체마다 고유의 특성과 욕구·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사회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정주공간의 단위



〈그림 4〉 인간의 정주공간 구성요소

자료: EKISTICS (Doxiadis, 1968)

하고 학문 분야에 따라 영향범위도 달라진다. 즉, 가장 기본적인 연구영역의

(Ekistic unit)는 인간정주체계의 전체 혹은 부분을 15개 단위로 분류하며 여기에서 ‘단위 1’은 인간(man), ‘단위 15’는 Ecumenopolis가 된다. 정주공간은 시간(time) 등 4차원적 요소들과 함께 인간정주의 생성·발전·소멸과 내적 평형 및 물리적 특성<sup>8)</sup>을 이뤄내고 있다. 정주의 목표는 가능한 목표보다는 바람직한 목표를 우선해야 하므로 인간의 욕구(needs)에 따라서 힘(force)이 형성되고 이 힘은 방향과 강도로 표시되면서 기동성을 가져 도시의 공간구조와 형태를 결정한다. 이러한 힘은 방향성을 갖는 공간적인 힘(spatial forces)으로 작용하여 중심이 되기도 하고 질감으로 표출되기도 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공간상에 일정한 힘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구조와 형태를 만든다.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원형, 선형, 기하학적 혹은 비기하학적 형태 등이다. 이러한 인간의 정주공간 형성원리와 구성요소에 의해 나눌 수 있는 학문적 분야는 다양

8) 입지, 규모, 기능, 구조, 형태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ekistics에는 이들에 대한 54개의 법칙(Ekistic Law)도 소개하고 있다.

구분은, 인간의 거주하는 공간규모에 해당되는 계획 분야는 건축이고, 이러한 인간과 건축물들이 모여 이루는 이웃과 마을을 다루는 영역은 도시, 그 밖의 세계도시(ecumenopolis)에 이르는 거대도시영역까지 공간은 모두 물리적 계획의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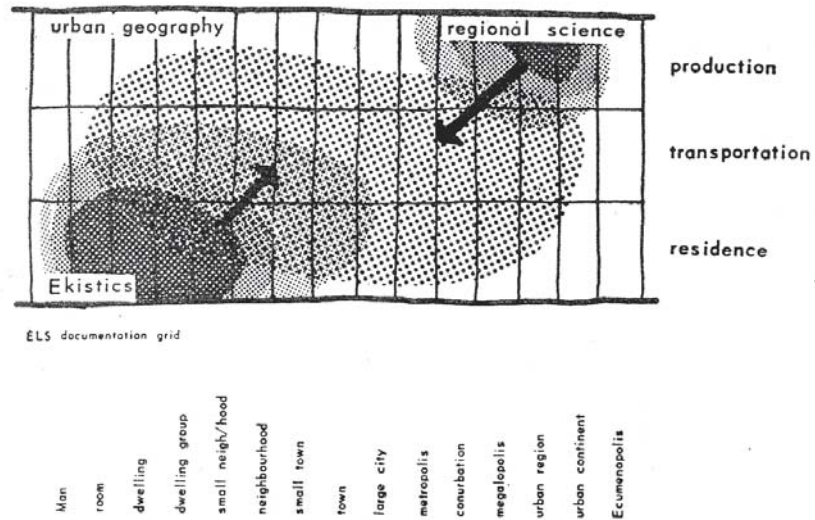
〈표 2〉 정주영역과 계획범위에 따른 학문영역

	분야 discipline	건축 architecture	도시 urbanism	물리적 계획 physical planning	합계 total											
도시지리학 urban geography	경제학 economics															
	사회학 social sciences															
	정치&행정 political & administration															
	기술분야 technical disciplines															
	문화분야 cultural disciplines															
	도시지리 · 합계 urban geography total															
지역학 regional science	경제학 economics															
	사회학 social science															
	정치&행정 political & administration															
	기술분야 technical disciplines															
	문화분야 cultural disciplines															
	지역학 · 합계 regional sciences total															
정주학 Ekistics	경제학 economics															
	사회학 social sciences															
	정치&행정 political & administration															
	기술분야 technical disciplines															
	문화분야 cultural disciplines															
	정주학 · 합계 Ekistics total															
		man	room	dwelling	dwelling group	small neighborhood	neighborhood	small town	Town	large city	metropolis	conurbation	megapolis	urban region	urbanized continent	Ecumenopolis

자료: EKISTICS(Doxiadis, 1968)



또한, <그림 5>에서 보듯이 정주영역과 계획범위에 따른 학문영역을 살펴보면 공간의 규모와 계획의 영역에 따라 관여하는 부분도 달라진다. 공간관련 물리적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정주학의 경우 타 학문영역에 비해 인간의 정주와 관련된 공간영역 전역에 걸쳐 사회와 문화의 관련성이 큰 학문이다. 또한, 정주학은 공간관련 타 학문 분야에 대하여 인간의 삶과 거주에 관련된 관계성과 영향력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림 5〉 공간관련 학문영역 범주

자료: EKISTICS (Doxiadis, 1968)

따라서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련한 연구는 독스아디스(Doxiadis)의 주장처럼 전체를 하나로 느끼게 해주는 도시영역의 기본요소로서 건축이 기계의 도움없이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단위로서의 인간 섹터(human sector)를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공간의 질과 건축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2) 공간의 질 관련 연구영역

공간의 질이나 문화는 유형의 성과물로 실현되기보다는 인간의 삶속에서 느끼고 향유하는 무형의 가치로서, 정량적 수치로 그 결과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

문에 그 특성을 가지적으로 명확화하기 또한 어렵다. 공간의 질이나 문화라는 무형의 가치를 유형화하고자 주로 질이나 문화 관련 지표들의 도출하고 평가하고 있으나, 건물이나 도시 내 편의시설 혹은 기반시설의 개수에 따라 공간이용의 만족도를 절대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다. 이것들은 정성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고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에서 건축 및 도시경관에 대한 정량적 평가보다는 대상이 주변의 시각적 질서에 맞게 적절하게 조성되었는지가, 건물의 용적률 자체보다는 이용 용도의 혼합내용이나 세대간의 조화 여부 등이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고려 할 공간의 질에 대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표 3>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필요한 질적 요소들

Jane Jacobs의 Livable cities	Kevin Lynch의 good urban form
1) 시각적 질서에 맞는 적절한 행태 (appropriate activity before visual order)	1) 영속성 (vitality)
2) 용도·세대간 혼합, 중심성 (mixed use, mixed age, mixed rent, concentration)	2) 적응성 (7)fit_adaptability)
3) 거리 (the street)	3) 영속성 (1)vitality)
4) 침투성(permeability, short blocks)	4) 접근성 (access)
5) 사회 혼합(social mix, consultation)	5) 제어 (control)
6) -	6) sense (인식의 명료성)
7) 건전한 공간(robust spaces)	7) 융통성(fit_adaptability)
8) 점진적인 자본(격변하지 않는) (gradual not cataclysmic money)	8) 효율성
9) 풍부한 활동(activity richness)	9) -
10) 자동차의 쇠퇴(automobile attrition)	10) 2가지 큰 기준, 효율성
11) 관리 감독(surveillance)	11) 관련 비용
12) 안전성(safety)	12) 정의 (사회적 형평성)

주) The ten commandments of architectural and urban design, Punter(1990)

또한 ‘질(質, quality)’은 사물을 사물답게 만들고 있는 것, 즉 천성 또는 내용의 좋고 나쁨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의미와 구성요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공간의 질을 고려한 연구영역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질의 좋고 나쁨에 관한 부분은 개인적 견해차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거시적인 질은 공공적 접근을 통한 공간의 영역과 이웃간의 관계속에서 나타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의 질에 접근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회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공간구성요소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공간의 가치, 이웃과의 관계, 보행자(인간) 중심의 설계, 다양성에 대한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표 4〉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질(quality)을 고려한 공간구성요소

구분	구성 요소	비고
질(quality)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설계의 6가지 영역	1) 역사적 보존과 도시보전 2) 보행자를 위한 설계 3) 이용의 다양성 및 지속성 4) 문화적 환경 5) 환경적 매력 6) 건축적 가치	Thomas W. Schurch (1999)
도시의 삶 중심인 5가지 물리적 특성	1) 살기좋은 거리와 이웃 2) 최소한의 토지이용과 거주지 개발 3) 거주, 직장, 쇼핑 등 활동의 집적과 서로간의 근접성 4) 건조환경내의 공공공간 확보 5) 군집의 명확한 건물군	Jacobs, A.B. & Appleyard D (1987)
공간설계에서 다루는 질(quality)적 특성과 목표·원리	1) 장소성 2) 밀도 3) 적절한 혼합용도 4) 보행자 중심의 휴먼 스케일 5) 인간적인 문화 6) 공공영역 7) 건조환경 8) 자연환경	Thomas W. Schurch (1999)

### 3) 건축문화 관련 연구영역

문화가 인간 삶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내듯이 드러내는 것이라면 건축은 이러한 인간 삶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다. 건축은 과거와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보관하고 보여주는 역사이며 문화이다. 즉 건축은 문화를 담는 그릇인 동시에 문화 그 자체이다. 건축문화는 건조된 환경 자체와 상호작용하여, 건축환경을 개발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접근이다. 건축환경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거리, 공원, 다리,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문화는 계획, 시공, 유지·보수를 포함하며, 건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 도시 및 지역 계획, 조경, 그리고 공공예술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축문화의 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좋은 건축환경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책임을 느끼는 수준의 결과이다. 즉 건축문화의 수준은 건축디자인의 질, 이용, 기능,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환경, 사회경제적 지속성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생산하기 위한 절차 및 과정이다<sup>9)</sup>.

9) Status report on Building Culture in German의 Building Culture 참고

## 2

## 기존 연구에서 분류된 공간관련 연구영역

## 1) AURIC 연감 2006 건축도시연구동향(2007)

AURIC 연감은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동향을 한눈에 살피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파악함으로써 추후의 과제를 도출하고 연구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마다 발간되고 있다. 국내 건축·도시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대상 논문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에서 검색 및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회지 및 서비스하지 않는 학회지를 포함한다. ‘2006 건축도시연구동향’은 총 23개 학술지에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 사이에 게재된 1,500여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논문들을 크게 건축학, 건축공학, 도시계획 분야의 논문들로 나누고 분야별로 논문의 주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개의 위계를 기본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되, 필요에 따라 소분류의 하위 분류로 세분류를 두어 분류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그 분류체계는 <표 5>와 같다.

이러한 분류는 주로 건축계획 및 설계 같은 건축학 분야는 『대한건축학회』의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며, 건축환경·설비 및 구조, 시공 등의 공학 분야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구조계)』, 『설비공학논문집』, 『한국강구조학회지』 등을 참고로 분류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분야는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의 정기학술대회 논문집의 분류 영역에 따라 분류하였다. 때문에 학회간 중복된 분류 영역의 경우 연구동향 분석시에도 중복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도시설계 분야는 『한국도시설계학회』 논문집인 “도시설계”가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목록에 추가(2007년)되기 이전까지는 별도의 연구영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표 5〉 건축·도시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거건축 계획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론 일반/ 기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재료특성/ 부재/ 구조성능/ PC/ 기타
	비주거건축 계획	상업·업무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체육 시설/ 의료보건시설/ 복지시설/ 숙박시설/ 산업 및 기타시설/ 기타		철골구조	재료특성/ 부재/ 시스템/ 접합부/ 기타
	복합건축 계획	주거+상업·업무시설/ 기타 복합시설/ 초고층 건축/ 기타		합성구조	보/ 기둥/ 접합부/ 슬래브/ 기타
	단지 및 조경 계획	주거단지 계획/ 비주거 단지 계획/ 기타		설계방법론	공간분석/ 정보기술 활용/ 설계 각론/ 설계조직·운영/ 리모델링/ 기타
	설계방법론	공간분석/ 정보기술활용/ 설계각론/ 설계조직·운영/ 리모델링/ 기타	실내건축	실내건축	재료 및 색채/ 가구디자인/ 기타
	실내건축	재료 및 색채/ 가구디자인/ 기타		열환경	운영환경/ 단열 및 결로/ 기타
	제도 및 교육	건축법규 및 제도/ 건축학 교육/ 기타		빛환경	자연채광/ 인공조명/ 일조/ 기타
건축역사 및 의장	한국전통 건축	성곽 및 도시/ 궁궐/ 관아 / 마을 및 주거/ 유교건축 / 불교건축/ 기타 건축/ 한국 전통건축 의장론/ 기술 및 제도/ 기타	건축환경 및 설비	음환경	실내소음/ 외부소음/ 음향 계획/ 진동/ 기타
	한국근대 건축	작가론/ 주거건축/ 상업 업무건축/ 공공건축/ 기타건축/ 도시계획/ 한국 근대건축의장론/ 기술 및 제도/ 기타		공기환경	오염물질/ IAQ/ 환기계획/ 기타
	아시아 건축	중국건축/ 일본건축/ 동남아시아 건축/ 기타		건축설비	공조설비/ 위생설비/ 열원 설비/ 소방 및 방재 설비/ 기타
	서양고전 건축	고대 그리스로마건축/ 중세건축/ 르네상스 바로크건축/ 기타		에너지	건물에너지/ 태양에너지/ 기타
	서양근대 건축	작가론/ 시설유형별 연구/ 도시계획/ 서양근대 건축 의장론/ 기타	기타		
	현대건축 의장론		도시 계획	도시계획 일반	이론/ 제도 및 정책/ 기타
	기타 지역건축			도시관리	도시성장/ 도시정비/ 방재/ 기타
	건축론 일반			도시구조	인구구조/ 사회경제구조/ 형태 및 기능구조/ 기타
	보전 및 복원			도시설계	설계이론/ 지구단위계획/ 단지계획/ 가로 및 경관/ 기타
	기타 지역건축			토지이용	토지이용계획/ 입지배분/ 기타
교통계획		교통계획		교통계획일반/ 교통수요/ 교통시설/ 교통소음/ 기타	
건축시공	건설기술	건설재료/ 건설시공/ 기타	도시경제 및 부동산	도시경제/ 부동산시장/ 기타	
	건설관리	프로젝트 관리/ 재건축 및 리모델링/ 기업경영/ 부동 산 및 파이낸싱/ 건설정보학/ 가치공학/ 제도 및 정책/ 기타	GIS 및 환경	GIS/ 환경일반/ 환경친화/ 환경제/ 기타	
			기타		

자료 : AURIC 연감 2007 건축·도시 연구 동향

## 2) 한국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경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1999)

-한국, 미국, 일본 도시계획학회지 기고논문(1989~1998)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40주년을 기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동향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영역별 연구경향을 도시계획 선진외국(미국, 일본)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동향은 대표학술지인 「국토계획」지를, 일본의 경우는 일본 도시계획학회<sup>10)</sup>의 학술지인 「도시계획」지를, 미국의 경우 미국 도시계획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JAPA」에서 “Book Review”, “Letters to the Editors” 등을 제외한 학술적 성격의 연구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연구영역을 분류하기 위해서 상기 3개국의 국토·도시계획 분야 대표학술지에서 분류하고 있는 연구영역을 기초로, 「JAPA」지에 기고되었던 Gery T. Johnson외 2인(1998)의 분류 및 APA 홈페이지에 수록된 연구영역 분류, 도시의 계획과 관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내용 중 학교교과과정 분류,<sup>11)</sup> 창립30주년 기념 한국국토·도시계획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89), 창립40주년 기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9)의 학회지 수록 논문 집계표 등을 참조하여 연구주제별로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자료를 범주화(categorization)하였다. 이렇게 해서 도출한 국토·도시계획분야의 연구영역을 <표 6>과 같이 분류하였다.

10) 도시 및 지역계획에 관한 과학기술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1951년 창립, 1968년 공익법인화되었으며 「도시계획(都市計劃)」지와 「도시계획논문집(都市計劃論文集)」을 각각 연6회와 연1회 발행하고 있다.

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도시의 계획과 관리”p.266, 보성각, 1997

□ 일본의 연구영역(일본도시계획학회지)분류

- 계획일반, 도시일반, 토지, 교통, 환경/관광, 단지계획, 지역경제, 행정/정책

□ 미국의 연구영역(미국도시계획학회지(JAPA))분류

- 연구방법론/모형/컴퓨터응용/통계, 경제개발/산업, 교통, 환경계획/관광, 도시 설계/도시형태, 도시사, 계획교육/정책, 지역계획/도시기본계획/주거단지계획, 토지이용/부동산/도시재개발/물리적 계획, 주거지개발/주택/사회계획, 행정/재정/정책/계획법

〈표 6〉 국토·도시계획 분야 연구영역의 분류

대분류	세분류	대분류	세분류
계획일반	계획이론/비판	환경/ 관광	환경/관광
	도시화		도시환경/생태
	도시사		환경오염
	GIS/컴퓨터 응용		여가시설
	정보화		공원녹지
도시일반	계획(국토/광역/도시)	단지 계획	도시개발/신도시
	도시구조/시설분포		도시설계/상세계획
	계획기법/조사·분석		도시경관
	도시재난		역사보전
	도시시설		주거환경
	도시체계/도시기능		
토지	토지제도/정책	지역 경제	지역경제일반
	토지이용		지역개발
	토지관리		산업관련
	지가/부동산		SOC
	주택		인구이동
교통	교통일반/정책	행정/ 정책	도시정부/일반
	교통수요		법규/제도
	교통수단/노선선택		주민참여/보상
	교통시설		재정/집행/평가
	대중교통		

이 연구영역 분류에서 대분류는 일본 도시계획학회의 연구영역을 따랐으며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영역 및 계획기법, 도시시설 등의 세 분류영역을 도시일반으로 분류하고, 도시설계 및 역사보전 영역을 단지계획으로 대분류하는 등 도시공간의 연구영역 분류 기준의 논리성이나 일관성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 3) 한국의 학회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경관 분야의 연구경향(2007)

이 연구는 조경, 건축, 토목, 도시, 국토계획, 산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관련 연구의 전개과정 및 연구경향을 검토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학회별 발표논문을 양적 및 시기별로 상호비교하였다. 연구영역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대신 학회별 게재 논문의 경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학회간 연구논문의 비교분석과 각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지 및 연구대상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경관’이라는 특정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관련 학술지의 추출은 국내 운영중인 1,657개의 학회 중 ‘경관’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학회소개 및 발표논문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경관’이라는 용어와 관련 있는 학회로서 「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대한토목학회」, 「대한주택학회」, 「대한관광경영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GIS학회」 등 총 11개의 학회를 선별했다. 이러한 분류와 분석을 통해 경관연구는 1973년 ‘한국조경학회’를 통해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 초반까지 결과는 미비하고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되었으며, 대상지는 서울과 대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많고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지 대상으로 한 인공경관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 4) 실내디자인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1997)

이 연구는 실내디자인을 통합적인 지식체계로 접근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실내디자인의 위상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예측하고자 실시되었다.

또한 실내디자인 분야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실내디자인 분야에서의 관심 방향과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실내디자인의 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목표로 하였다.

1970년에서 1996년까지 나온 실내디자인 및 실내건축에 관련된 석·박사학위



논문(560부)의 제목과 초록을 대상으로 연구대상공간과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5년 단위로 연구대상공간의 연도별 추이를 검토하고 실제공간과 가상공간 등 연구대상을 분류하였다. 대상논문의 연구목적이 ‘이론의 개발에 관련된 영역인가’, 혹은 ‘비교나 분석을 위한 것인가’, ‘이론을 근거로 응용을 검토한 것인가?’, ‘단순히 응용 지향적인 것인가?’ 등에 따라 살펴보고 있으며 그에 기준이 되는 연구주제의 분류는 kilmer(1992)의 주제 분류를 인용하였다. 실내디자인 관련 연구를 순수디자인과 디자인 역사, 형태측면, 이론 등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또 다시 디자인과 이론 분야로 세분류하였다. 실내디자인 분야로서 공간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실무와 이론 영역으로 단순화된 분류영역이 제시되었다.

#### □ 연구주제 분류

- 디자인/ 디자인 역사/ 형태측면/ 이론
- 디자인 - 공간/ 색/ 재료/ 장식/ 시설설비/ 디자인 기법/ 전시
- 이론 - 환경행태와 방법론/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이론/ 기타

### 5)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향(2000)

실내디자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에 관해 조사하고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연구로서 연구주제와 목적, 방법 등에 따른 연구논문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동향의 변화와 실내디자인 학회지의 발전동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주제를 연구대상공간과 이론의 개발 및 비교, 분석측면, 응용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에 따라 문헌, 실험, 조사, 디자인 연구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기준은 주로 공간의 이용형태에 따른 것으로 실내건축의 범위에 국한될 수 있는 분류이다.

〈표 7〉 실내건축의 연구분야 분류

대상공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간 일반			
주거공간	전통주택	한국	
		서양	
	현대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시설주거	아동
		노인	
상업공간	호텔공간 상점공간 식음공간 결혼식공간 백화점공간		
공공문화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 종교공간 공공공간		
업무 및 병원공간	업무공간 병원공간		
기타	가구 CAD 디자인방법 디자인이론 교육 기타		

# 3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영역

###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임무 및 비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방향 및 시책을 중앙 정부에 제시하고, 건축도시 관련 업계의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사업환경을 조성하며,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건축문화를 향상시키는 등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고 보급·확산하여 건축도시디자인의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따라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품격 있는 건축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수립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다 좋은 건축도시공간이 만들어지도록 기여함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건축도시문화의 정체성을 발견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변화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건축유형의 개발·관리 등 미래 지향적 건축도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건축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 및 제도를 개선하며, 인간중심, 문화중심의 건축도시 환경 구축과 건축도시 문화의 보급·확산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건축도시의 독창성·정체성을 발굴하고 유지·복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공의 건축도시환경을 사회적 자산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으로 연구 및 기타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품격있는 건축도시문화를 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도시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동아시아 허브(Hub)이자 중심적인 교류네트워크센터로서 성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영역

이러한 국가적,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장기적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추진해야 할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 건축도시환경의 공공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 건축도시 디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책 수립 및 건축도시공간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
- 건축도시공간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연구
-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 건축도시공간 및 건축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그 밖의 위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영역 및 방향 선정 및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구 분야와 방향 제시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동향 및 수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 공적 공간
- 공간 환경의 질
- 공간의 가치특성
-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
- 상기 키워드에 대한 실행력 확보(설계 기법, 정책 및 제도)





## 건축도시공간분야 연구동향

1. 개요
2.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존 연구동향
3. 공간의 질을 고려한 연구동향
4. 소결

# 건축도시공간 분야 연구동향

## 1 개요

본 장에서는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연구주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건축도시공간 분야 여건이 조성되고 유지된 시점인 최근 5년간의 건축도시공간 분야 연구로 한정하였다. 2003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도시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이 도입(2000년 1월 전부개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4월 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년 12월 제정)’이 제정되어, 현재의 건축도시공간의 법적인 계획체계가 자리 잡은 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실적은 건축도시공간계획관련 대표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의 논문집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대상 연구논문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상기 3개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되었던 논문 2,292편이다.

〈표 8〉 학회별 연구논문 실적(2003년~2007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대한건축학회	238 (62.3%)	290 (66.1%)	328 (69.6%)	393 (74.6%)	343 (72.5%)	1,592 (69.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30 (34.0%)	130 (29.6%)	122 (25.9%)	108 (20.5%)	105 (22.2%)	595 (26.0%)
한국도시설계학회	14 (3.7%)	19 (4.3%)	21 (4.5%)	26 (4.9%)	25 (5.3%)	105 (4.6%)
합계	382 (100.0%)	439 (100.0%)	471 (100.0%)	527 (100.0%)	473 (100.0%)	2,29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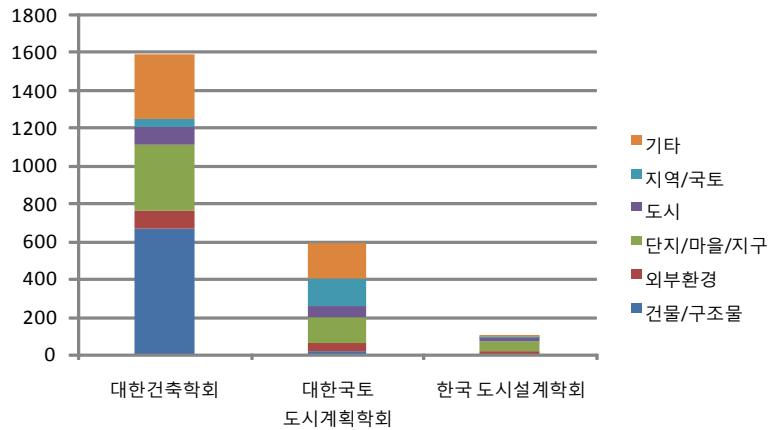
또한, 상기 3개 학회 중 가장 역사가 길고 회원 저변이 넓은 대한건축학회<sup>12)</sup>의 경우 한 해 게재 논문 편수가 나머지 두 학회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다. 따라서 대한건축학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건축물과 건조환경에 대한 연구실적이 많아 공간규모에 대한 산술적 연구실적 분석결과는 편향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간규모별 연간 추이와 학회별 연구동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9〉 공간규모별 학회 연구실적

구분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합계
건물/구조물	672 (42.2%)	17 (2.9%)	0 (0.0%)	689
외부환경	95 (6.0%)	45 (7.6%)	20 (19.0%)	160
단지/마을/지구	345 (21.7%)	136 (22.9%)	52 (49.5%)	533
도시	94 (5.9%)	63 (10.6%)	23 (21.9%)	180
지역/국토	43 (2.7%)	143 (24.0%)	2 (1.9%)	188
기타	343 (21.5%)	191 (32.1%)	8 (7.6%)	542
합계	1,592 (100.0%)	595 (100.0%)	105 (100.0%)	2,292

12) 대한건축학회는 1945년에 창립되었으며 개인회원 15,200여명, 도서관회원 140여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축을 비롯한 공간의 전반분야를 연구영역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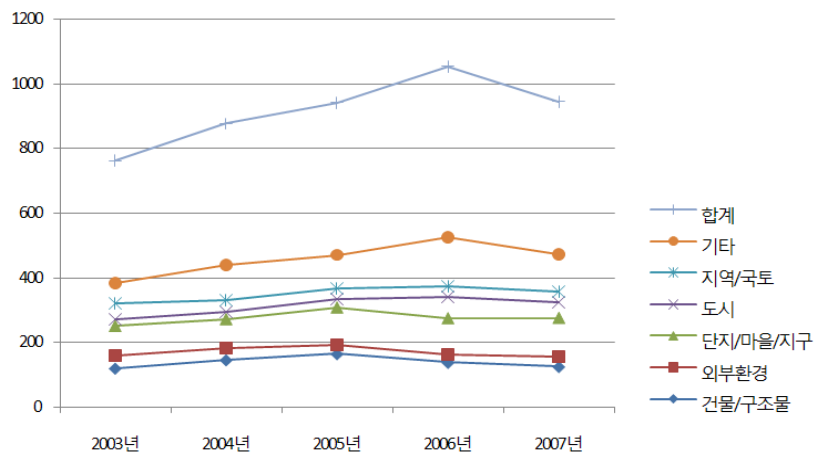


〈그림 6〉 공간규모별 학회 연구실적

## 2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존 연구동향

### 1) 연구대상 공간별 연구동향

공간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증가추세이며 2006년도에는 특히 최근 5년의 기간 중 가장 많은 공간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공간규모별 경향을 살펴보면 지역/국토 분야 및 도시 분야의 연구가 증가한 반면 건물 및 그 외부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감소추세이다.



〈그림 7〉 연구대상 공간규모별 연구실적(2003~2007)

특히 연구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적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은 이론 및 분석 등에 관련한 연구가 많아졌다. 공간이론이나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의 프래그머티즘적 의의에 관한 연구”(2007, 신유림), “미니멀리즘 관점에서 본 David Chipperfield의 주거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2006, 이정란), “1950-60년대 한국건축의 기술적 담론에 관한 연구”(2006, 정인하), “전통사상을 통한 공간구성방법 도출에 관한 연구”(2007, 이성수)등과 같이 기존 건축가의 이론이나 개념을 해석하거나 공간의 시대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공간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즉 이용주체나 메커니즘 등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는 등 공간에 대한 연구영역의 폭이 넓어졌다. “삶의 질 분석 모형 / 사회통계지표를 중심으로”(2007, 정창무), “개발밀도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2006, 오주용), “인구와 파워엘리트 분포로 본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2006, 김창석)등 공간을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성 및 그들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일본 도시경관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2005, 광동윤), “한국의 적정인구 추세에 관한 연구 2000~2300년을 중심으로”(2007, 김형기), “소득계층을 고려한 직주균형 지표의 개발과 주택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2006, 김준형),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주민지지 결정요인 경기도 4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2007, 김미숙) 등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한 공간계획의 정책적 함의와 그 실행 수단에 관한 연구, 혹은 “국채대환이 유동화된 상업저당대출의 가치 평가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2006, 신승우) 등 공간의 질과 규모 결정에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도시설계 교육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2007, 박소현), “미국 표준계약양식에 나타난 건축사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분석”(2006, 김소라)와 같이 물리적 공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연구 등 공간연구영역의 스펙트럼이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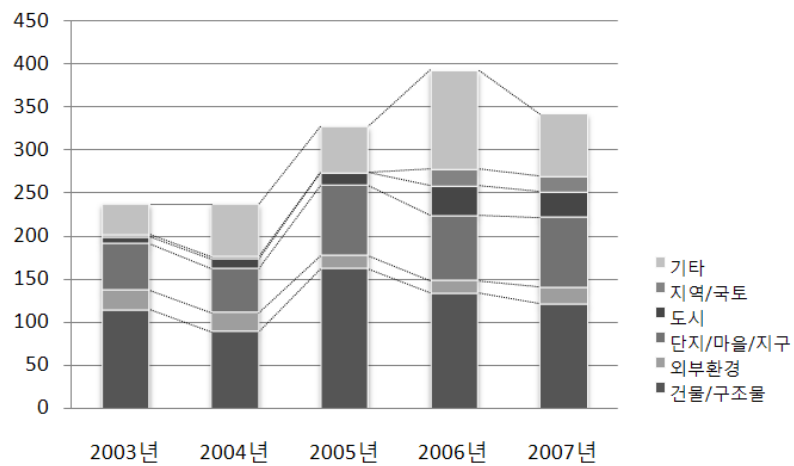
## 2) 학회별 연구동향

### (1)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는 건축학 분야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활동여건을 조성하는 단체로서 이 학회에서 다루는 연구분야는 건축을 중심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내부분야 즉, 건축계획, 구조, 환경, 설비, 재료, 시공과 도시 및 단지 분야에 이르는 영역이다. 도시 영역까지 삶의 공간 전반을 다루고는 있으나 주로 건축물과 구조물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는

〈표 10〉 대한건축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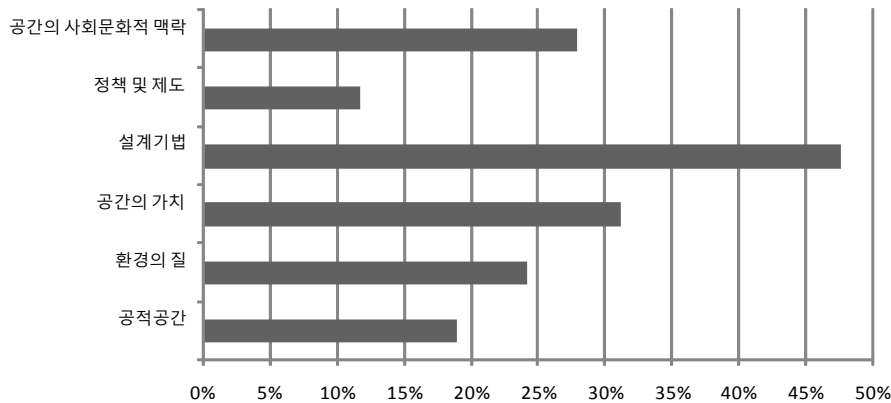
공간규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건물/구조물	114 (47.9%)	89 (30.7%)	162 (49.4%)	134 (34.1%)	121 (35.3%)	672
외부환경	23 (9.7%)	22 (7.6%)	16 (4.9%)	14 (3.6%)	20 (5.8%)	95
단지/마을/지구	54 (22.7%)	52 (17.9%)	82 (25.0%)	76 (19.3%)	81 (23.6%)	345
도시	8 (3.4%)	10 (3.4%)	13 (4.0%)	34 (8.7%)	29 (8.5%)	94
지역/국토	2 (0.8%)	4 (1.4%)	0 (0.0%)	19 (4.8%)	18 (5.2%)	43
기타	37 (15.5%)	61 (21.0%)	55 (16.8%)	116 (29.5%)	74 (21.6%)	343
합계	238	290	328	393	343	1592



〈그림 8〉 대한건축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건조환경에 대한 연구가 그 중심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경향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연구의 양적으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건물/구조물과 그 외부환경에 대한 연구보다는 단지나 지구 혹은 도시영역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법 제정, 지구단위계획 실시, 활발해진 뉴타운 및 신도시사업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대상의 공간 환경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경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9〉 공간의 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연구(대한건축학회)

또한, 공간의 질적 영역에 대한 연구형태를 살펴보면 학회의 특성상 검토대상 연구논문의 절반 정도가 설계기법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입지여건에 따른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계획개선책 연구”(2005, 박병희),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기준에 대한 기초적 연구”(2003, 문창호), “초고층빌딩 형태디자인을 위한 디지털 설계도구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2007, 조종수) 등 공간계획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설계기준과 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과 제도적 개선안에 대한 고민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며, 환경의 질과 공적공간에 대한 고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구빈도가 낮은 편이다.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정동 이화학당 한옥교사의 복원에 관한 연구”(2005, 강선혜), “창덕궁 인정전 일곽의 공간구성 변화”(2005, 박희용), “도시계획규제가 도시형태 변화에 끼친 영향 분석”(2007, 진영효) 등 전통건축과 건축이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간이 갖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분석을 통해서 공간 문제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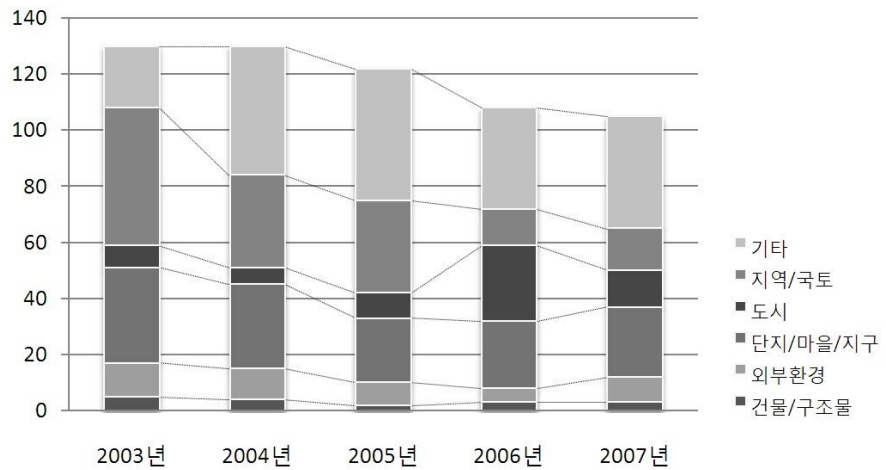
## (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959년 창립된 국토 및 도시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학회로서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일반, 토지, 교통, 단지계획, 지역경제, 행정 및 정책에 이르는 국토 전역에서 도시 및 단지규모의 공간계획에 작용하는 도시체계 전반에 이른다. 도시계획 및 설계 부분의 연구영역은 2000년 창립된 한국도시설계학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감소하여 연구주제에서도 직접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예컨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2005, 이영성), “대중교통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2006, 김만경),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007, 이희연) 등과 같이 물리적 공간환경을 만들어 가는 시장구조와 관리체계, 사회시스템에 관한 분석연구들이 그 주류를 이룬다. 또한, 참여정부에 활발히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계획들이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답보하면서 지역과 국토차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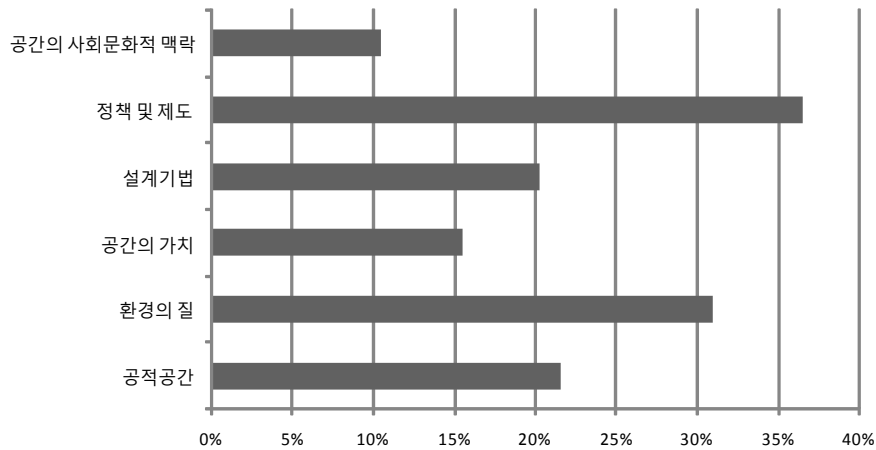
〈표 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건물/구조물	5 (4.0%)	4 (3.1%)	2 (1.6%)	3 (2.8%)	3 (2.9%)	17 (2.8%)
외부환경	12 (9.2%)	11 (8.5%)	8 (6.6%)	5 (4.6%)	9 (8.6%)	45 (7.7%)
단지/마을/지구	34 (26.2%)	30 (23.1%)	23 (18.9%)	24 (22.2%)	25 (23.8%)	136 (22.8%)
도시	8 (6.2%)	6 (4.6%)	9 (7.4%)	27 (25.0%)	13 (12.4%)	63 (10.6%)
지역/국토	49 (37.7%)	33 (25.4%)	33 (27.0%)	13 (12.0%)	15 (14.3%)	143 (24.0%)
기타	22 (16.9%)	46 (35.4%)	47 (38.5%)	36 (33.3%)	40 (38.1%)	191 (32.1%)
합계	130	130	122	108	105	595



〈그림 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공간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정책 및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다른 두 학회에 비하여 큰 공간을 다루고 있어 공간의 공공성과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도시역사나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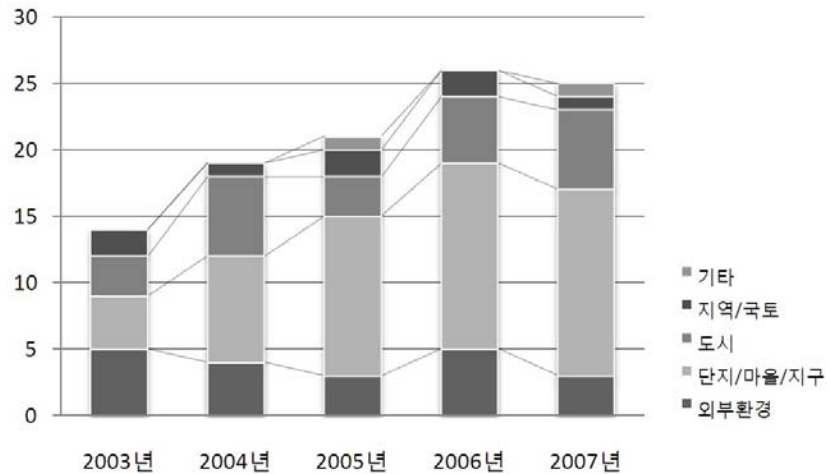
〈그림 11〉 공간의 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연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3)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는 다른 2개 학회에 비하여 역사가 짧고 연구영역이 좁으며 한 해 평균 21개 정도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단지계획, 도시설계 등이 주요 연구분야이며 최근 연구주제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나 지구단위계획, 마을만들기 등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연구대상 공간도 단지나 마을, 지구단위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도시차원의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2〉 한국도시계획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공간규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외부환경	5 (35.7%)	4 (21.1%)	3 (14.3%)	5 (19.2%)	3 (12.0%)	20
단지/마을/지구	4 (28.6%)	8 (42.1%)	12 (57.1%)	14 (53.8%)	14 (56.0%)	52
도시	3 (21.4%)	6 (31.6%)	3 (14.3%)	5 (19.2%)	6 (24.0%)	23
지역/국토	2 (14.3%)	1 (5.3%)	2 (9.5%)	2 (7.7%)	1 (4.0%)	8
기타	0 (0.0%)	0 (0.0%)	1 (4.8%)	0 (0.0%)	1 (4.0%)	2
합계	14	19	21	26	25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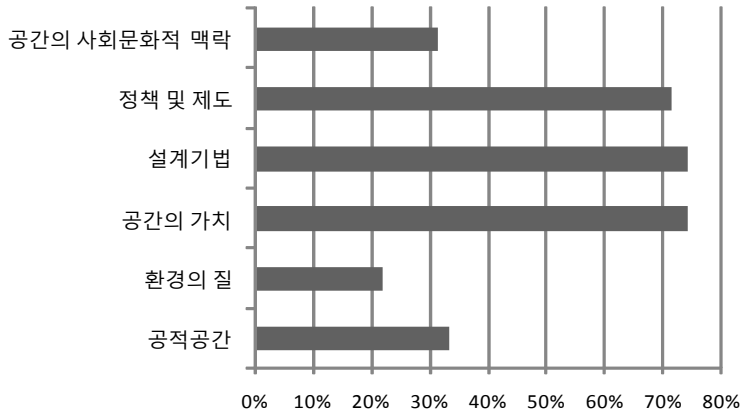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도시계획학회의 최근 연구동향(2003~2007)

도시설계는 물리적 공간의 시각적 질이나 기능적 효율성의 바람직한 기준을 설정<sup>13)</sup>하고 물리적, 사회적 조직으로서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계획, 설계, 규제하는 행위로서의 영역 특성상, 공간의 질 그리고 공공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학회에 비하여 공간의 질을 고려한 연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환경적 지속성 측면의 도시계획요소가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2004, 권성실), “도시건축디자인 : ‘문화적 관점’ -오래된 생활문화근린의 재생을 중심으로”(2006, 김민수) 등과 같이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나, “서울시 주거지에의 블록형아파트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2006, 손세관), “일조

13) Colman(1988), p.106

조건을 고려한 주거단지재생 방안 연구”(2007, 성순택) 등과 같은 설계기법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설계분야가 학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타 학회에 비하여 공간의 가치와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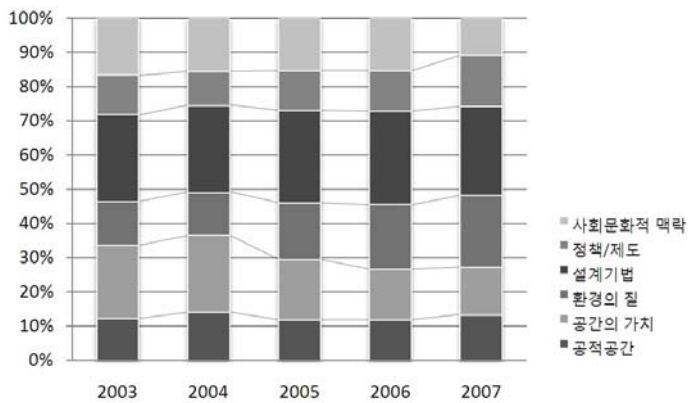


〈그림 13〉 공간의 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

## 공간의 질을 고려한 연구동향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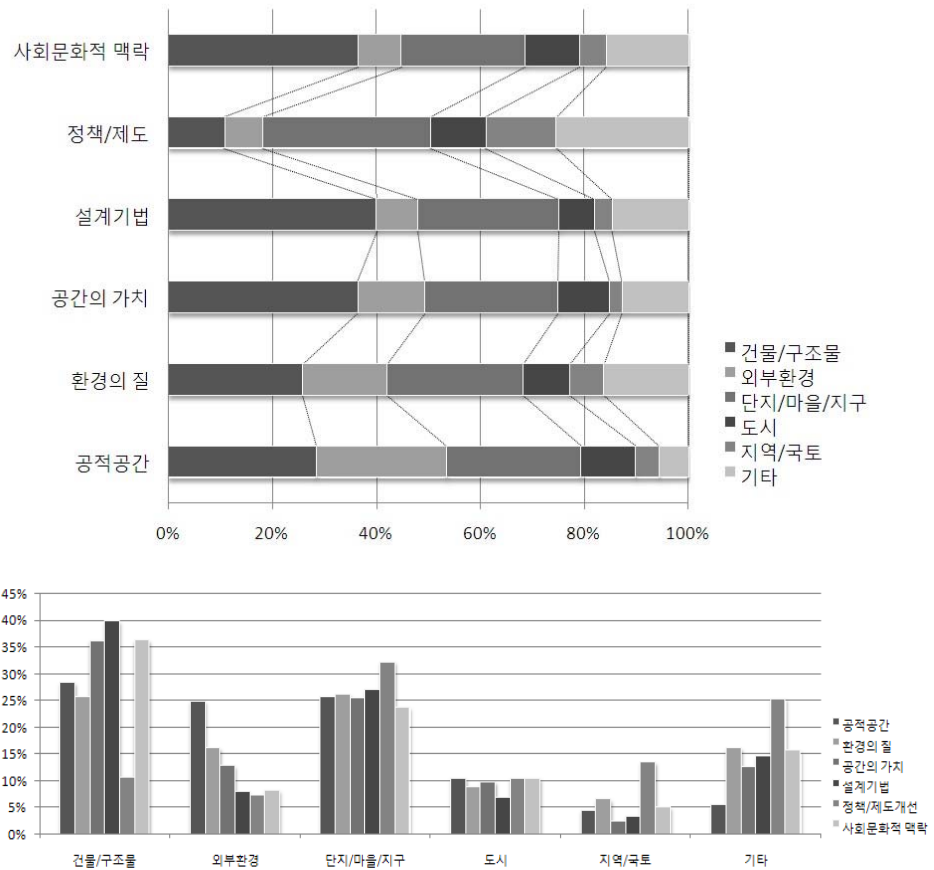
삶의 질과 관련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 5년간 공간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에 비하여 공간의 정체성이나 공공성 등 공간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의 비중은 낮아졌다.



〈그림 14〉 공간의 질을 고려한 연구추이



또, 공간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비하여 단기간의 가시적 시사점과 기여도가 낮은 공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 연구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공적공간의 질이 건조공간환경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sup>14)</sup>는 의식의 확산과 함께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5) 항목별 연구대상 공간규모

하지만 여전히 삶과 밀접한 공간인 건물이나 구조물, 그리고 단지나 지구 규모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공간의 질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환경의 경우 공원, 광장, 거리 등 공적공간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간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기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실천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4) T.W.Schurch(1999), 앞의 책 p.23

최근 5년간 건축도시공간관련 연구에서 공간의 질에 대한 연구동향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적 공간

공적공간은 공공이 소유하는 공간 영역으로서 공원, 광장, 거리 같은 거주민과 보행자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통칭하며 건조물의 주변 환경여건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완충 공간이다.<sup>15)</sup> 이런 의미에서 공간연구에서 공적공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수록 공간의 질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공간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20.2%만이 공적공간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간규모별로는 건물과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건물과 구조물의 공간규모에서 공적공간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외부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72.5%가 공적공간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있었다. 이들 연구들은 “주거단지 외부공간의 친환경성 평가에 관한 연구”(2004, 오수호)처럼 친환경 개념이나 생태적 개념으로 공적공간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로변 건축물 외관색채가 가로경관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5, 박성진)와 같이 경관과 가로 이미지 개선을 통한 공간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공적공간의 개선을 위한 설계기법이나 법제도적인 해법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주거단지 외부공간의 활용증대를 위한 계획기법에 관한 기초연구”(2006, 서지은), “도심재개발에 있어서 가로활성화 계획요소에 대한 연구”(2006, 이승필)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기법에 관한 연구는 소수이다.

15) T.W.Schurch(1999)는 Jane Jacobs, Kevin Lynch, the IUD, Alan Jacobs, Donald Appleyard 등 많은 공간계획가들이 언급한 다양한 공간의 질을 구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장소성, 밀도, 적절한 혼합용도, 보행자 중심의 휴먼 스케일, 인간적인 문화, 공공영역, 건조환경, 자연환경 등을 들고 있다.

〈표 13〉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

공간규모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557 (30.5%)	132 (28.4%)	689 (30.0%)
외부환경	44 (2.4%)	116 (25.0%)	160 (7.1%)
단지/마을/지구	413 (22.6%)	120 (25.9%)	533 (23.2%)
도시	131 (7.2%)	49 (10.6%)	180 (7.9%)
지역/국토	167 (9.1%)	21 (4.5%)	188 (8.2%)
기타	516 (28.2%)	26 (5.6%)	542 (23.6%)
합계	1828 (100%/79.8%)	464 (100%/20.2%)	2,292 (100%/100%)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 2) 공간의 가치특성

어떠한 공간이 갖는 본질적 가치특성은 장소성, 정체성, 공공성 혹은 그밖의 삶의 공간에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의 특성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기후, 식생, 역사, 건물, 음악, 음식, 농업 등 자연적 특성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과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의 문화적 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의 가치특성은 물리적 공간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소와 그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기초가 되는 일일 것이다.

최근 공간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공간의 가치특성에 대한 연구는 조사대상 연구의 29.1% 정도이며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공간관련 연구에서 가치특성에 관한 주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가치특성 파악 대상이 명확하고 파악이 용이한 건물과 구조물(35.1%), 그리고 외부환경(53.8%)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연구로는 “역사적 도심지구 내 터줏대감의 정주의식에 관한 연구”(2003, 정세림), “수몰된 종족마을의 건축-문화적 지속성에 관한 연구”(2004, 전호상) 등과 같이 거주자의 의식이나 공간이 이루는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나 “길의 구조로 본 한국전통마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2005, 양승정), “교회건축 외부공간의 의장적 상징성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2007, 김근식) 등과 같이 공간의 구조나 의장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가치특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 등이 있다.

〈표 14〉 공간의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447 (27.5%)	242 (36.3%)	689 (30.0%)
외부환경	74 (4.6%)	86 (12.9%)	160 (7.1%)
단지/마을/지구	362 (22.3%)	171 (25.7%)	533 (23.2%)
도시	114 (7.0%)	66 (9.9%)	180 (7.9%)
지역/국토	172 (10.6%)	16 (2.4%)	188 (8.2%)
기타	457 (28.1%)	85 (12.8%)	542 (23.6%)
합계	1626 (100%/70.9%)	666 (100%/29.1%)	2,292 (100%/100%)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 3) 공간 환경의 질

물리적 공간환경의 질은 객관적, 절대적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지만 인간적 스케일감이나 건조환경과 그 내부, 외관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 공간의 물리적 쾌적도 혹은 조화도로 인식할 수 있다.

최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 물리적 공간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분석대상 공간관련 연구들중 공간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는 26.8% 정도를 차지하는데 특정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공간규모의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환경친화적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생태평가기법 연구”(권전오, 2004), “도심지 하천변 아파트 주동 배치에 따른 향, 조망 가치 비교분석”(박성연, 2006) 등과 같이 환경의 질이라는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하거나, “노후공동주택의 성능개선을 위한 거주자 설문조사에 관한 연구”(이병태, 2005), “개발밀도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오주용, 2006) 등과 같이 공간의 쾌적도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에 의존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표 15〉 공간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

공간규모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537 (31.6%)	152 (25.7%)	689 (30.0%)
외부환경	64 (3.8%)	96 (16.2%)	160 (7.1%)
단지/마을/지구	378 (22.2%)	155 (26.2%)	533 (23.2%)
도시	127 (7.5%)	53 (9.0%)	180 (7.9%)
지역/국토	149 (8.8%)	39 (6.6%)	188 (8.2%)
기타	446 (26.2%)	96 (16.2%)	542 (23.6%)
합계	1701 (100%/74.2%)	591 (100%/26.8%)	2,292 (100%/100%)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 4)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일정한 공간범위의 사회에서 전승되는 행동양식이나,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간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건조물과 사람들 간의 문화정도로 볼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청주시 역사적 도심주거지내 방형가구의 현황 및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박영기, 2004), “한국근대기 일본인이주어촌의 포구취락 구조와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박중신, 2004) 등과 같이 역사적 관점에서 공간분석하여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는 연구가 감소함에 따라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연구한 논문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최근에는 “단위와 커뮤니티의 해석을 통한 현대 주거공간의 비정주적 특성에 관한 연구”(김현하, 2005),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단지환경적 특성 및 범죄안전성에 관한 연구”(김석경, 2007) 등과 같이, 이러한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하여 그것을 공유하는 커뮤니티(community)적 시각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16〉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

공간규모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492 (28.1%)	197 (36.4%)	689 (30.0%)
외부환경	115 (6.6%)	45 (8.3%)	160 (7.1%)
단지/마을/지구	404 (23.1%)	129 (23.8%)	533 (23.2%)
도시	113 (6.5%)	57 (10.5%)	180 (7.9%)
지역/국토	160 (9.1%)	28 (5.2%)	188 (8.2%)
기타	457 (26.1%)	85 (15.7%)	542 (23.6%)
합계	1751 (100%/76.4%)	541 (100%/24.6%)	2,292 (100%/100%)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 5) 설계기법 및 제도적 수단

공적 공간에 대한 고려, 공간 환경의 질에 대한 고민 등 위에서 제시한 공간의 질을 고려하기 위한 연구들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실천수단은 계획 및 설계기법 제시나 정책 및 제도적 대안 제시이다. 특히 많은 공간의 계획 및 설계 분야의 연구에서는 공간구성 메커니즘의 개선 대안으로서 다양한 계획 및 설계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공간관련 연구들 중 약 41.5%가 이러한 계획 및 설계적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40%는 건물과 구조물에 관한 공간연구로서, “소규모 재개발에 의한 노후불량주거지의 점진적 정비수법에 관한 연구”(신중진, 2005), “주택규모에 따른 다세대주택지의 방위각별 적정획지와 가구모형 계획에 관한 연구”(이장범, 2005) 등과 같이 주거단지 계획에 대한 개선안이 다수이다.

〈표 17〉 계획 및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

공간규모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309 (23.1%)	380 (39.9%)	689 (30.0%)
외부환경	84 (6.3%)	76 (8.0%)	160 (7.1%)
단지/마을/지구	274 (20.4%)	259 (27.2%)	533 (23.2%)
도시	115 (8.6%)	65 (6.8%)	180 (7.9%)
지역/국토	155 (11.6%)	33 (3.5%)	188 (8.2%)
기타	403 (30.1%)	139 (14.6%)	542 (23.6%)
합계	1340 (100%/58.5%)	952 (100%/41.5%)	2,292 (100%/100%)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반면 구체적 정책 및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전체 분석대상 연구의 19% 정도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정책 및 제도에 관련한 연구들이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김태경, 2007), “도시계획제도와 의 관계를 고려한 경관관리제도 정비방향 연구”(최정선, 2006) 등과 같이 구체적 공간에 대한 분석 및 적용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공간 관련 제도와 정책의 체계에 대한 분석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18〉 정책 및 제도적 수단 마련을 위한 연구

공간규모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642 (34.6%)	47 (10.8%)	689 (30.0%)
외부환경	128 (6.9%)	32 (7.3%)	160 (7.1%)
단지/마을/지구	392 (21.1%)	141 (32.3%)	533 (23.2%)
도시	134 (7.2%)	46 (10.6%)	180 (7.9%)
지역/국토	129 (7.0%)	59 (13.5%)	188 (8.2%)
기타	431 (23.2%)	111 (25.5%)	542 (23.6%)
합계	1856 (100%/81%)	436 (100%/19%)	2,292 (100%/100%)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 4 소결

건축도시공간계획 관련 대표학회의 논문집에 수록된 연구논문들을 주제와 대상 공간규모면에서 검토·분석하여 도출한, 최근 5년(2003~2007년)간 건축 도시공간 분야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공간관련 연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연구주제에서 다루는 주제의 스펙트럼도 다양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과 주거단지에 대한 공간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공간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즉 이용주체나 공간구현의 시장논리 등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도 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을 중심의 건조환경에 대한 연구들이 중심이 되었던 대한건축학회의 논문들의 대상공간이 단지와 지구, 도시공간의 건조환경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계획 추진의 부진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지역과

국토 차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3개 학회의 연구대상 공간이 단지와 지구를 중심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간의 질에 대한 연구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1) 공적 공간, 2) 공간의 가치특성, 3) 공간 환경의 질, 4)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 5) 설계 기법 및 제도적 수단에 대한 연구동향도 살펴보았다. 삶의 질과 관련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간의 질과 관련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물리적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공간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공간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 연구주제들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공간관련 연구에서 공간의 질을 고려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간의 가치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한 연구는, 물리적 공간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데 단시간에 적용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기초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공간의 가치특성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 기반을 형성하는 연구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원, 광장, 거리 등 공적 공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설계기법이나 제도적 대안 등 실천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적 공간에 대한 계획 및 설계기법, 그리고 정책 및 제도적 대안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그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탐구도 필요하다.

셋째, 공간의 질이라는 정성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표 등을 통한 정량적 분석보다는 각 주제와 가치 특성에 대한 면밀한 정성적인 탐구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 IV.

## 건축도시공간관련 연구수요 조사

1. 조사 개요
2. 건축도시공간관련 연구수요 조사·분석
3. 소결

# 건축도시공간 관련 연구수요 조사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건축·도시 분야 학계, 연구계, 관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축·도시 분야 2008년도 기초연구 및 중장기전략연구 주제를 제안 받아 연구소 내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사업 선정작업에 반영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 2) 조사 대상 및 방법

실제 조사방법으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총 110인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조사기간

2007. 8. 27 ~ 9. 19(총 23일 간)

### 4) 조사내용

기초연구 및 중장기 전략연구 과제명 및 연구의 필요성 항목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 5) 조사결과

전문가 110인 대상으로 의뢰하였으나 회신율은 30%이며 기초 연구 61개, 중장기 전략연구 58개로 총 119개 과제가 제안되었다.

## 건축도시공간 관련 연구수요 조사·분석

# 2

이 절에서는 연구수요 조사분석의 결과를 정리하고, 제안된 연구주제들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3장에서 정리한 기존의 연구동향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공간규모별 분류를 중심으로 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공간규모별 분류를 중심으로 한 분석

연구대상이 되는 공간규모에 있어 건물/구조물, 단지/마을/지구에 해당하는 연구가 많았던 기존의 연구동향과는 달리, 건물/구조물, 도시 분야에 대한 연구주제가 많았으며, 특정 공간규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제안이 절반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안된 주제들이 개별 공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상이한 규모의 공간에 걸치는 통합적인 이론, 제도 등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9〉 공간규모별 연구분류

공간규모 구분	요약
건물/구조물	23 (19.3%)
외부환경	5 (4.2%)
단지/마을/지구	12 (10.1%)
도시	26 (21.8%)
지역/국토	2 (1.7%)
기타	51 (42.9%)
합계	119 (100%)

연구대상이 되는 공간규모별로 공적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연구는 주로, 건물/구조물에 대한 연구제안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동향에 비해 사적인 공간이 주가 되는 건물/구조물에 대한 연구제안이 줄고, 공적공간에 대해 요구하는 연구의 수가 더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건물/구조물의 공간규모에서의 공적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한 것은 개별건축물의 변화없이 기존의 도시나, 단지/마을/지구차원, 외부환경 차원에서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건물/구조물들을 제외한 공간규모에 대한 연구에서는 공적공간에 대한 주제가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응답한 전체 연구주제 중 공적인 공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는 연구는 29.4%로 기존 연구동향의 20.2%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표 20〉 공간규모별 - 공적공간에 대한 고민

공간규모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8 (9.5%)	15 (42.9%)	23
외부환경	1 (1.2%)	4 (11.4%)	5
단지/마을/지구	7 (8.3%)	5 (14.3%)	12
도시	21 (25.0%)	5 (14.3%)	26
지역/국토	2 (2.4%)	0 (0.0%)	2
기타	45 (53.6%)	6 (17.1%)	51
합계	84	35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공간규모별로 공간의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연구는 기타 규모, 도시, 건물/구조물에 대한 연구제안에서 많이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동향에서는 건물/구조물과 단지/마을/지구 수준의 공간규모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역시 일정규모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공간규모에 걸쳐 공간의 가치를 고려하는 데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규모에서의 논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연구주제 중 공간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는 연구는 63.8%로 기존 연구동향의 29.1%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공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 가치에 대한 논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표 21〉 공간의 가치특성을 고려한 연구

공간규모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6 (14.0%)	17 (22.4%)	23
외부환경	1 (2.3%)	4 (5.3%)	5
단지/마을/지구	6 (14.0%)	6 (7.9%)	12
도시	4 (9.3%)	22 (28.9%)	26
지역/국토	1 (2.3%)	1 (1.3%)	2
기타	25 (58.1%)	26 (34.2%)	51
합계	43	76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연구대상이 되는 공간규모별로 환경의 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연구는 전반적인 연구제안에 걸쳐서 많이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동향은 건물/구조물과 단지/마을/지구 수준의 공간규모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 환경에 질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수요조사 결과에서는 건물/구조물과 함께 상대적으로 기타 규모에서의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주제가 다소 많았다. 이 역시 일정규모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공간규모에 걸쳐 환경의 질을 구현하는 데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연구주제 중 환경의 질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는 연구는 21.8%로 기존 연구동향의 25.7%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2〉 공간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

공간규모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18 (19.4%)	5 (19.2%)	23
외부환경	1 (1.1%)	4 (15.4%)	5
단지/마을/지구	6 (6.5%)	6 (23.1%)	12
도시	22 (23.7%)	4 (15.4%)	26
지역/국토	2 (2.2%)	0 (0.0%)	2
기타	44 (47.3%)	7 (26.9%)	51
합계	93	26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공간규모별로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둔 연구는 기타 규모, 도시 규모의 공간규모를 다루는 연구에서 많이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동향은 건물/구조물과 단지/마을/지구 수준의 공간규모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서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는 연구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일정규모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공간규모에 걸쳐 통합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데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연구주제중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는 연구는 35.3%로 기존 연구동향의 23.6%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

공간규모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17 (22.1%)	6 (14.3%)	23
외부환경	5 (6.5%)	0 (0.0%)	5
단지/마을/지구	10 (13.0%)	2 (4.8%)	12
도시	13 (16.9%)	13 (31.0%)	26
지역/국토	1 (1.3%)	1 (2.4%)	2
기타	31 (40.3%)	20 (47.6%)	51
합계	77	4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연구대상의 공간규모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계획 및 설계기법을 고려하는 연구는 도시규모, 기타, 그리고 건물/구조물의 공간규모를 다루는 연구에서 많이 나타났다. 외부환경이나 단지/마을/지구에 대한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제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존의 연구동향은 건물/구조물과 단지/마을/지구 수준의 공간규모에 대한 연구에서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연구수요조사의 결과는 건물/구조물 등의 공간규모에서의 설계기법은 여전히 포함하고 있으나, 도시규모 및 기타 규모에서의 계획 및 설계기법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전체 연구주제 중 공간의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는 52.1%로 기존 연구동향의 41.5%에 비해 증가되었다.

〈표 24〉 계획 및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

공간규모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6 (10,5%)	17 (27,4%)	23
외부환경	2 (3,5%)	3 (4,8%)	5
단지/마을/지구	2 (3,5%)	10 (16,1%)	12
도시	8 (14,0%)	18 (29,0%)	26
지역/국토	2 (3,5%)	0 (0,0%)	2
기타	37 (64,9%)	14 (22,6%)	51
합계	57	6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연구대상의 공간규모별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의 분포를 살펴 보면 일정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연구제안이 가장 많았으며 건물/구조물에 대한 정책/제도에 대한 연구제안이 뒤를 이었다. 기존의 연구동향은 단지/마을/지구 수준의 공간규모에 대한 연구에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전체 제안된 연구주제 중 공간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는 52.1%로 기존 연구동향의 19.0%에 비해 대폭 증가된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25〉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간규모 구분	0	1	합계
건물/구조물	8 (14,0%)	15 (24,2%)	23
외부환경	3 (5,3%)	2 (3,2%)	5
단지/마을/지구	6 (10,5%)	6 (9,7%)	12
도시	18 (31,6%)	8 (12,9%)	26
지역/국토	2 (3,5%)	0 (0,0%)	2
기타	20 (35,1%)	31 (50,0%)	51
합계	57	6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 2) 주요 주제범주 간 교차분석

앞 절의 분석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간규모에 따라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 주제범주 항목이 어느 정도 제안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주제범주 항목을 다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공간에 대한 고려. 둘째, 공간의 가치에 대한 고려. 셋째, 환경의 질에 대한 고려. 넷째, 사회문화적 맥락. 다섯째, 계획 및 설계기법. 여섯째, 정책/제도개선. 이 절에서는 각 주제범주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제시된 연구주제들이 가지는 주제범주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와 다른 연구주제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적공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적공간의 토대로서의 공적공간이 가지는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기능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대되면서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져 왔다.

〈표 26〉 공적 공간 - 공간의 가치특성

공적공간 \ 가치특성	0	1	합계
0	32 (74.4%)	52 (68.4%)	84
1	11 (25.6%)	24 (31.6%)	35
합계	43	76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주제 중 공간의 가치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비중은 68%이며,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주제가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인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공적인 공간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공간의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공간의 가치를 다루는 주제는 공적공간이 아닌 영역에 대한 연구제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공적공간 - 공간환경의 질

공적공간 \ 공간환경의질	0	1	합계
0	70 (75.3%)	14 (53.8%)	84
1	23 (24.7%)	12 (46.2%)	35
합계	93	26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 중 환경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는 34.3%이고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 가운데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는 46.2%였다. 두 주제범주는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제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공적공간 -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

공적공간 \ 사회문화적 맥락	0	1	합계
0	53 (68.8%)	31 (73.8%)	84
1	24 (31.2%)	11 (26.2%)	35
합계	77	4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제안 중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연구는 31.4%였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제안 중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는 26.2%였으며 두 주제범주는 약간의 관련성을 가지고 제안되었다.

〈표 29〉 공적공간 - 설계기법

공적공간 \ 설계기법	0	1	합계
0	43 (75.4%)	41 (66.1%)	84
1	14 (24.6%)	21 (33.9%)	35
합계	57	6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 중 계획 및 설계기법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는 60.0%이고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 가운데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는 33.9%였다. 공적인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반면, 계획 및 설계기법을 다루는 연구주제는 공적공간이 아닌 영역에 대한 연구제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 중 정책 및 제도를 고려하는 연구는 65.7%이고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 가운데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는 37.1%였다. 공적인 공간에 대한 연구는 정책/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상당수 포함하는 반면, 정책/제도 분야의 연구제안들은 공적공간이 아닌 영역에 대한 연구제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공적공간에 대한 고민 - 정책/제도개선

공적공간 \ 정책/제도개선	0	1	합계
0	45 (78.9%)	39 (62.9%)	84
1	12 (21.1%)	23 (37.1%)	35
합계	57	6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주제는 전체 연구제안 중 21.8%를 차지한다.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는 물량 중심의 공간공급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공간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화두로 하는 연구라 할 수 있는데,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와 여타 연구주제의 범주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제안 중 공간의 가치를 고려하는 연구는 60.0%이고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제안 가운데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는 33.9%였다.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는 공간의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는 반면, 공간의 가치를 다루는 연구주제는 환경의 질 외의 영역에 대한 연구제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보다 넓은 의미의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가 공간의 가치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환경의 질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공간의 가치에 대한 논의와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 공간 환경의 질 - 공간의 가치특성

공간환경의 질 \ 공간의 가치특성	0	1	합계
0	34 (79.1%)	59 (77.6%)	93
1	9 (20.9%)	17 (22.4%)	26
합계	43	76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제안 중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연구는 11.5%이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제안 가운데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는 7.1%였다.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이질적으로 여겨지는 경향을 보여, 분리되어 연구제안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환경의 질에 대한 평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연구제안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 공간 환경의 질 - 사회문화적 맥락

공간환경의 질 \ 사회문화적 맥락	0	1	합계
0	54 (70.1%)	39 (92.9%)	93
1	23 (29.9%)	3 (7.1%)	26
합계	77	4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표 33〉 공간 환경의 질 - 계획 및 설계기법

공간환경의 질 \ 설계기법	0	1	합계
0	49 (86.0%)	44 (71.0%)	93
1	8 (14.0%)	18 (29.0%)	26
합계	57	6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제안 중 계획 및 설계기법을 고려하는 연구는 69.2%이고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제안 가운데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는 29.0%였다.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계획 및 설계기법상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연구제안은 환경의 질 이외에 대한 연구도 상당수 제안되고 있었다.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가 계획 및 설계기법상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은 대부분 계획 및 설계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사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환경의 질에 있어 기법 외의 부분에 대한 연구주제가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4〉 공간 환경의 질 - 정책/제도개선

공간환경의 질 \ 정책/제도개선	0	1	합계
0	44 (77.2%)	49 (79.0%)	93
1	13 (22.8%)	13 (21.0%)	26
합계	57	6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제안 중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고려하는 연구는 50.0%이고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제안 가운데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는 21.0%였다.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 중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연관되는 제안이 많았는데, 이는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일부분에 불과했는데, 이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공간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연구 자체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간의 가치에 대해 고려하는 연구주제는 전체 연구제안 중 63.9%를 차지하고 있다.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공간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데에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정체성, 공공성, 인식 등 추상적인 공간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간의 가치를 다루는 연구제안 중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연구는 46.0%이고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제안 가운데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83.3%였다. 공간의 가치를 다루는 연구제안은 절반 정도가 사회문화적 맥락을 상당히 고려하는 한편,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주제는 대부분 공간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의 가치에 대한 논의없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를 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5〉 공간의 가치특성 - 사회문화적 맥락

공간의 가치특성 \ 사회문화적 맥락	0	1	합계
0	36 (46.8%)	7 (16.7%)	43
1	41 (53.2%)	35 (83.3%)	76
합계	77	4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공간의 가치를 다루는 연구제안 중 계획 및 설계기법을 고려하는 연구는 57.9%이고 공간의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제안 가운데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71.0%였다. 공간의 가치를 다루는 연구제안은 절반 이상이 계획 및 설계기법을 고려하는 한편,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제안은 대부분 공간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 및 설계기법의 판단 및 평가가 공간의 가치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 36〉 공간의 가치특성 - 설계기법

공간의 가치특성 \ 설계기법	0	1	합계
0	25 (43.9%)	18 (29.0%)	43
1	32 (56.1%)	44 (71.0%)	76
합계	57	6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공간의 가치를 다루는 연구제안 중 정책 및 제도개선을 고려하는 연구는 39.5%이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제안 가운데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48.4%였다. 두 연구주제 범주는 유사한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표 37〉 공간의 가치특성 - 정책/제도개선

공간의 가치특성 \ 정책/제도개선	0	1	합계
0	11 (19.3%)	32 (51.6%)	43
1	46 (80.7%)	30 (48.4%)	76
합계	57	6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공간의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해 고려하는 연구주제는 전체 연구제안 중 52.1%를 차지하고 있다. 공간의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는 공간전문가들의 실무영역으로서 실제 법정계획에 의한 설계가 진행되는 영역인 점을 반영, 많은 연구가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표 38〉 설계기법 - 사회문화적 맥락

설계기법 \ 사회문화적 맥락	0	1	합계
0	34 (44.2%)	23 (54.8%)	57
1	43 (55.8%)	19 (45.2%)	62
합계	77	4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계획 및 설계기법을 다루는 연구제안 중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연구는 30.6%이고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제안 가운데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는 45.2%였다. 전반적으로 계획 및 설계기법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고려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여,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강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9〉 설계기법 - 정책/제도개선

설계기법 \ 정책/제도개선	0	1	합계
0	17 (29.8%)	40 (64.5%)	57
1	40 (70.2%)	22 (35.5%)	62
합계	57	6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계획 및 설계기법을 다루는 연구제안 중 정책 및 제도개선을 고려하는 연구는 35.5%이고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제안 가운데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 또한 35.5%를 차지하였다. 두 연구영역의 교집합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상호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연구주제가 제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간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는 전체 연구제안 중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는 연구는 전체 연구제안 중 35.3%에 달하고 있었다.

〈표 40〉 정책/제도개선 - 사회문화적 맥락

정책/제도개선 \ 사회문화적 맥락	0	1	합계
0	30 (39.0%)	27 (64.3%)	57
1	47 (61.0%)	15 (35.7%)	62
합계	77	42	119

(주 : 해당 주제를 고려할 경우 1, 고려하지 않을 경우 0)

이상 살펴본 주요 주제범주간 교차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주요 주제범주간 교차분석결과(단위: %)

A \ B	공적 공간	공간의 가치	공간 환경의 질	사회문화적 맥락	계획 및 설계기법	정책/제도 개선
공적공간에 대한 고려		68,0	34,3	31,4	60,0	65,7
		31,6	46,2	26,2	33,9	33,9
공간의 가치			33,9	46,0	57,9	39,5
			60,0	83,3	71,0	48,4
환경의 질				11,5	69,2	50,0
				07,1	29,0	21,0
사회문화적 맥락					45,2	35,7
					30,6	24,2
계획 및 설계기법						35,5
						35,5
정책/제도 개선						

(주 : 위의 수치는 B 가운데 A의 비중, 아래수치는 A 가운데 B의 비중)



# 3

## 소결

지금까지 4장에서는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연구수요에 대한 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에 대한 분석을 공간규모별 분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주요 주제범주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및 각 주제범주간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공간규모별 분류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특정 공간규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제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의 관심대상이 개별적인 공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스케일의 공간에 걸치는 통합적인 이론, 제도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물/구조물의 차원에서의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주제가 많았는데, 기존 연구동향에 비해서 공적공간에 대한 비중이 50% 가까이 높아진 점, 그리고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제안자들의 공간적 범주가 건물/구조물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동향에 비해 100% 이상 증가된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현 시점에서 공간에서의 가치논의가 필요함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주제의 경우 기존 연구동향에서는 건물/구조물, 단지/마을/지구 수준의 문제제기가 대부분이었으나, 공간의 범주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와 도시규모의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주제가 많았다.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다 집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검토하는 연구의 비중도 기존 연구동향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기존 연구동향에 비해 공간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련된 연구주제가 대폭 증가된 비중으로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특정 공간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통합적인 접근을 주로 제안하였으며, 개별 건물/구조물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는 최근의 건축기본법과 연관된 개별건축물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기초를 같이하는 흐름이라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통합적인 도시개발 및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주요 주제범주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주제들은 공간 가치의 문제와 함께 제시되지만, 공간의 가치 자체에 대한 연구는 공적공간, 사적공간 모두에서 검토되었다. 또,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들은 계획 및 설계기법과 관련되거나,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되어 연구주제로 제시되는데, 공적인 공간자체에 대한 정의와 공적이 공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원론적인 공적공간론에 대한 연구는 제시되지 않고, 여타 분야와의 접속점을 찾는 주제가 주로 제시되었다.

둘째,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주제들은 역시 공간의 가치의 문제와 함께 제안되었는데,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으며, 계획 및 설계기법과 관련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환경의 질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를 넘어, 사회문화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맥락에 대한 지역연구 및 공간연구가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학술적 제안은 찾기 어려웠다. 이 부분의 연구제안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주제는 이전 연구동향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전문가들의 관심증대를 반영하고 있으나 계획 및 설계기법과의 관련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간의 가치에 대한 더 원론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제안들은 전체 연구주제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며, 사회문화적 맥락,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연구범주와 관련되어 연구주제가 제안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향후 연구과제의 방향설정 및 선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며, 각 분석결과들도 내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추후 토론 및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 V.

##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연구의 한계

# 결론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 건축도시공간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향후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연구수요를 전망하여, 좁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향후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넓게는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구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건축·도시공간 관련 분야의 연구동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도시공간 관련 대표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최근 5년간(2003~2007년)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 공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과제 수요조사는 관련 학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공간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건축도시공간계획 관련 대표학회의 논문집에 수록된 연구논문들을 주제와 대상 공간규모 면에서 검토·분석하여 도출한, 최근 5년(2003~2007년)간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공간관련 연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연구주제에서 다루는 주제의 스펙트럼은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기존에는 건축물과 주거단지에 대한 공간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공간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즉 이용주체나 공간구현의 시장논리 등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건축물이 건조환경의 연구 중심이 되었던 대한건축학회 논문

들의 대상공간이 단지과 지구, 도시공간의 건조환경까지 확대되었으며,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의 지역과 국토차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3개 학회의 연구대상 공간이 단지과 지구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간의 질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 공적 공간, 2) 공간의 가치특성, 3) 공간 환경의 질, 4)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 5) 설계기법 및 제도적 수단에 대한 연구동향도 살펴보았다. 삶의 질과 관련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간의 질과 관련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물리적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공간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공간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 연구주제들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공간관련 연구에 있어 공간의 질을 고려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공간의 가치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한 연구는 물리적 공간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데 단시간에 적용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기초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공간의 가치특성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 기반을 형성하는 연구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원, 광장, 거리 등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설계기법이나 제도적 대안 등 실천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적공간에 대한 계획 및 설계기법, 그리고 정책 및 제도적 대안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그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탐구도 필요하다.

셋째, 공간의 질이라는 정성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표 등을 통한 정량적 분석 보다는 각 주제와 가치 특성에 대한 면밀한 정성적인 탐구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건축도시공간분야의 연구수요에 대한 조사의 응답결과에 대한 분석을 공간규모별 분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주요 주제범주간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의 연구와의 차이점 및 각 주제범주간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간규모별 분류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정 공간규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제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의 관심대상이 개별적인 공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스케일의 공간에 걸치는 통합적인 이론, 제도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동향에 비해서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주제의 비중이 50% 가까이 높아진 점, 그리고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제안자들의 공간적 범주가 건물/구조물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동향에 비해 100% 이상 증가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시점에서 공간에서의 가치논의가 필요함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주제의 경우 공간의 범주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와 도시규모의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주제가 많았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다 집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검토하는 연구의 비중도 기존 연구동향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기존 연구동향에 비해 공간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련된 연구주제가 대폭 증가된 비중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최근의 건축기본법과 연관된 개별건축물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기초를 같이하는 흐름이라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통합적인 도시개발 및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주요 주제범주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들은 공적인 공간자체에 대한 정의와, 공적인 공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원론적인 공공공간론에 대한 연구는 제시되지 않고, 여타 분야와의 접속점을 찾는 주제가 주로 제시되었다.

둘째, 환경의 질에 대한 연구주제들 역시 공간의 가치 문제와 함께 제안되었는데,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으며, 계획 및 설계기법과 관련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환경의 질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를 넘어, 사회문화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맥락에 대한 지역연구 및 공간연구가 필수적이므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주제는 이전 연구동향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나 계획 및 설계기법과의 관련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간의 가치에 대한 더 원론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계획 및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제안들은 전체 연구주제의 절반이 넘을 정도이며, 사회문화적 맥락,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연구범주와 관련되어 연구주제가 제안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도출할 수 있는 건축도시공간분야의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공간의 스케일에 한정되지 않는 통합적인 도시공간의 구축방안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실천적인 방안을 찾는 연구에 앞서, 각 논의대상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및 문제의 정의와 그에 따른 실증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간의 가치와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는 상이한 영역의 논의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선도적 공간담론형성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넷째, 공간환경에 대한 질적인 평가연구는 단순한 물리적·기능적 평가를 넘어 그리고 사회와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평가로 심화, 확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천단계에서는 개별사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각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며 다층적인 공간연구를 선도하고 활성화하여 공간이론의 실증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 2 연구의 한계

이상의 분석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향후 연구과제의 방향설정 및 선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며, 각 분석결과들도 내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추후 토론 및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동향을 거칠게나마 범주화하였고, 새롭게 제시된 연구주제들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된 연구주제들의 위상을 평가하고, 연구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 본 연구는 단순한 수요조사결과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밀도있는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의 한계 등으로 해외학술동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해외 학술동향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연구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도시 분야의 실무현황에 대한 동향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향후 연구주제별 중요도에 대한 현실적 평가가 누락되어 있다. 실제 정책이나 사업 등의 전개과정을 점검하지 못해, 실무현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제를 추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추후 연구과제 수요분석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건축도시공간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주제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1**

건축도시공간분야 연구동향 분석표(일부예시)

- **부록2**

건축도시공간관련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

## 참고문헌

- 고병호,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의 학문적 동향과 연구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000
- 김윤수 외, 「한국 국토·도시계획분야의 연구경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1999
- 이경희, 「건축환경계획학의 영역설정문제」, 대한건축학회, 2001
- 장희명 외, 「기존도심 활성화 방안에서의 사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2008
- Doxiadis, 「EKISTICS」, HUTCHINSON, 1968
- Punter, 「The ten commandments of architectural and urban design」, 1990
- Thomas W.Schurch, 「Reconsidering urban design : Thoughts about its definition  
and status as a field or profession」, Journal of Urban Design, 1999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URIC 연감 2005 건축·도시 연구 동향」, 2006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URIC 연감 2006 건축·도시 연구 동향」, 2007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URIC 연감 2007 건축·도시 연구 동향」, 2008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도시의 계획과 관리」, 보성각, 1997
- 박헌주, 「2007 주택도시연구원의 건설기술 연구현황과 비전」, 건축, 2007
- 주택도시연구원, 「제5차(2003~2011) 중장기연구개발계획」, 2002

summary

## A Study on the Demand for Architectural and Urban Research

Oh, Sung Hoon  
Seong, Eun Young

### 1. Introduction

Nowadays the recognition that good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can be the source of the cultural pride for the national feeling and be the kernel element to make the international image of the nation and to construct the competitive power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cases for the famous place of the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from abroad.

Furthermor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make their effort to develop for the famous place by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the public design and city scape. Making the pleasant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to live in is the basic step contributing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city. Furthermore, it is the time to plan the spatial betterment in quality through the maintenance of the spatial circumstance and the creation of the new image. Now the effort to make the good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can be interpreted as the cultural phenomenon.

This is the background why 'the architecture and urban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June 2008 with the ambition to take a role to operate the fundamental research and monitoring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as a national institute and to create better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as a think-tank in Korea.

AURI(the architecture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is charged with the mission to offer,

replenish and spread the mental foundation for good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culture to change for the better the quality of our lives and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national designing power. The year of 2007 is the first year of AURI's establishment so the task in priority to fix the direction and the field of the research and to propel continuously.

In conclusion,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have a view for the demand of the researches in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which is for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and the reconsideration of the architectural culture. For microscopic aspect, it can be utilized as the fundamental materials for selection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for macroscopic aspect, it can show the proper direction and field of research to make good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 **2. Research field of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Classifying is quite important for analysing the research data. Following J.S.Mill, we create the classifying by the whole general name. Since J.S.Mill, 'Classifying' has been the most basic word in the world and the classifying of the phenomenon is recognized to the first fundamental step in the whole scientific fields.

As the research about the requirement of human settlemen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meaning of the space, dwelling space of the human mainly about the quality of the space and the cultural aspects.

The research about the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need to be considered mainly about the human sector as the maximum unit for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and the architecture without the assistance of the machinery and for this, we can deliberate about human mainly for the human life, the quality of the life for the social aspect and the architectural culture.

However we cannot make a limitation for the meaning and the range in the quality of the space so the boundary on the research field about the quality of the space is also indistinct. Especially, there will be the difference of the individual opinion whether the quality of the space is good or not so macroscopic quality is shown between the spatial territories and the neighborhood relationship in the public approach.

In accordance with this, the existing researches approached to the quality of the space in this viewpoint an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ity and the society, the spatial elements are the quality of the space abou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ircumstance, the relationship within the neighbor, the design mainly for the pedestrian(human), the considering about the diversity.

The fields that 'the architecture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proceed are the political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ity and the quality in the architecture and urban surroundings, the research for the intensification of the architectural and urban design, the research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or local autonomous spatial policy and the support for the project associate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By the investigation and synthesis of the research field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research field and the spatial quality, that of 'architecture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we assort the criteria for the presentation of the research field and direction to create good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As the criteria, 1)Public space, 2)The quality of the space, 3)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spatial value, 4)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the space, 5)Improvement of the designing techniques and the policy.

### **3. The tendency of the research on the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The tendency of the research on the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deduced by the investigation and synthesis of the theses from the representative institute about the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planning during these 5 years(2003-2007) is as follows.

During these 5 years, the number of the research associated with the space has been increased

and the spectrum of the dealing subject tends to be diversified.

While The main stream of the existing studying has dealt with the spatial studying of the architecture and the housing projects, nowadays the theses about the elements that consist of the space such as a user or the market logic for the materialization of the space also have been increased.

Especially, the objective space of the theses from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has been mainly about the architecture and the constructing surroundings but it is extended to the housing area, the district and the constructing surroundings of the urban space. Further more, there are the tendency of the research objects from 3 institutes included 'Korea planners association' to be converged into mainly the housing area and the district.

Also for the analysing of the research tendency about the spatial quality, the tendency of the research about the criteria-1)Public space, 2)The quality of the space, 3)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spatial value, 4)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the space, 5)Improvement of the designing techniques and the policy- is as follows.

With the upsurge of the interest for the life quality, there have been many kinds of the researches on the spatial quality and the researches on the quality of the physical circumstance have been grown continuously. On the other hands, the research subjects about the essential value



of the space and the analysing the social cultural context which has the difficulties to make the practical alternatives about the spatial problem have been decreased relatively. Considering the result of this analysis, we need to make a effort as follows to activate the research associated the space.

First of all, although the researches associated with the valuable character of the space and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do not show the possible and practical alternatives in a short time to plan and make the physical space, we can make the basic foundation to establish the desirabl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pace from those researche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researches which consist of the essential foundation for the arguing about the valuable character of the space.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ng, although there are vigorous arguments and researches on the public space such as a park, a square and the streets, there is a small number of the approaches about the practical researches such as the planning techniques or th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researches about the plan, planning techniques, policies and the institutional alternatives of the public space and to investigate the cases that is applicable to the definite space.

Third, to make the researches on the qualitative character such as the quality of the space, the alternatives which is drawn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ing about each subjects and the valuable

characters rather than the quantitative studying about the objective index.

#### **4. The survey for the requirement of the researches about the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In this part, we proceed the analysis of the respondent result about the survey for the requirement of the researches mainly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by the scale. Further more, with the intersected analysis of the main subject areas, we inquire into the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researches and the relatives within each subject areas.

Consequently, from the analysis mainly based on the classification by the spatial scale, we assort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 of all, the major stream of the research is the proposal which do not have their object in the specified size of the space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esearch object is extended to the united theory and institution through the spaces of the mutually different scale escaped from the problem of the separated space.

Second, compared with the tendency of the existing researches, the percentage of the subjects associated the public space increased for 50% and the spatial range of the public space proposed by the researchers is limited to the architecture/structure.

Third, we can see the increasement of the research subjects about the spatial value for the

amount above 100% compared with the existing researches. It means many professionals agree with the necessity of the arguing about the spatial value.

Fourth, for the research subjects about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we can find the subjects easily which do not prescribe the category of the space or approach by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in the city scaled level. It is interpreted to propose the necessity of the general and macroscopic viewpoint for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Moreover, there is an emphasis of those context because there is also the increase of the researches about that subject and compared with the tendency of the existing researches, it is grown above 50%.

Fifth, the research subjects associate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and the institution are shown as increased relative importance and it is seen to be in line with the political approach about the each architecture related to the latest architectural law.

## **5. Conclusion**

The results which are sorted through the intersected analysis about the main category of the subjects.

First, for the researches related to the public space, it is a little hard to find the subjects which define the public space itself and sort the problem of the public space essentially. Instead of

that, the research subjects are shown with the connection within the other fields.

Second, the research subjects about the quality of the circumstance are proposed with the value of the space but there is a short of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and mainly based on the plan and planning technique. However over the functional valuation of the circumstance's quality, for the social and cultural valuation, it is essential to make a research about the district and the space related to the existing context.

Third, the research subjects about the value of the space increased very much compared with that of the past, it shows the grown interest of the professionals. However it is not enough because still, there is a emphasis of the relatives within the plan and planning techniques. It is seem to be necessary to approach by the essential and philosophical ways.

Fourth, the proposals associated with the plan and the planning techniques take the majority over the half of all and those researches are related to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and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we assort the implications to select the research subject about the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category.

First, There is a requirement of the research to make the united urban constructing system which is unlimited to the scale of the each space.

Second, Forward to find out the practical alternatives, there need to be defined the fundamental concept and the problem of the each object and inquired positively.

Third, the recognition for the importance of the spatial value and social and cultural context has been increased gradually 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acesetting spatial discussion through the process which is united the arguments within the mutually different categories.

Fourth, the valuation research in quality of the space surroundings need to deepen and be extended to the valuation which has the reflection of the society, culture and history over the physical and functional assessment.

Fifth, even though there are many kinds of the critical minds, on the way to practice and materialize, we have to make the foundation with the positive research of each case. For that reas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basis of the spatial theory by the activating of the continuous multi spatial research.

The analysis mentioned above need to be reflected when we fix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and select the research subject in 'the architecture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and each analyzed result need to be debated and demonstrated by the professionals of both the inside and outside.

On this research, we categorize the tendency of the existing researches roughly and valueate the shown research subjects through the comparing with the new ones. Moreover we examine the

interrelated influences of the research subjects so we set our aim to execute the dense analysis over the marshal of the survey index for the demand. Nevertheless, there is the limitation.

First, in our research, the analysis about the tendency of the studying from abroad is not included because we have a short of the investigation time. It is necessary to execute the research of that and the comparing of the studying. After that, we can check our direction of the resear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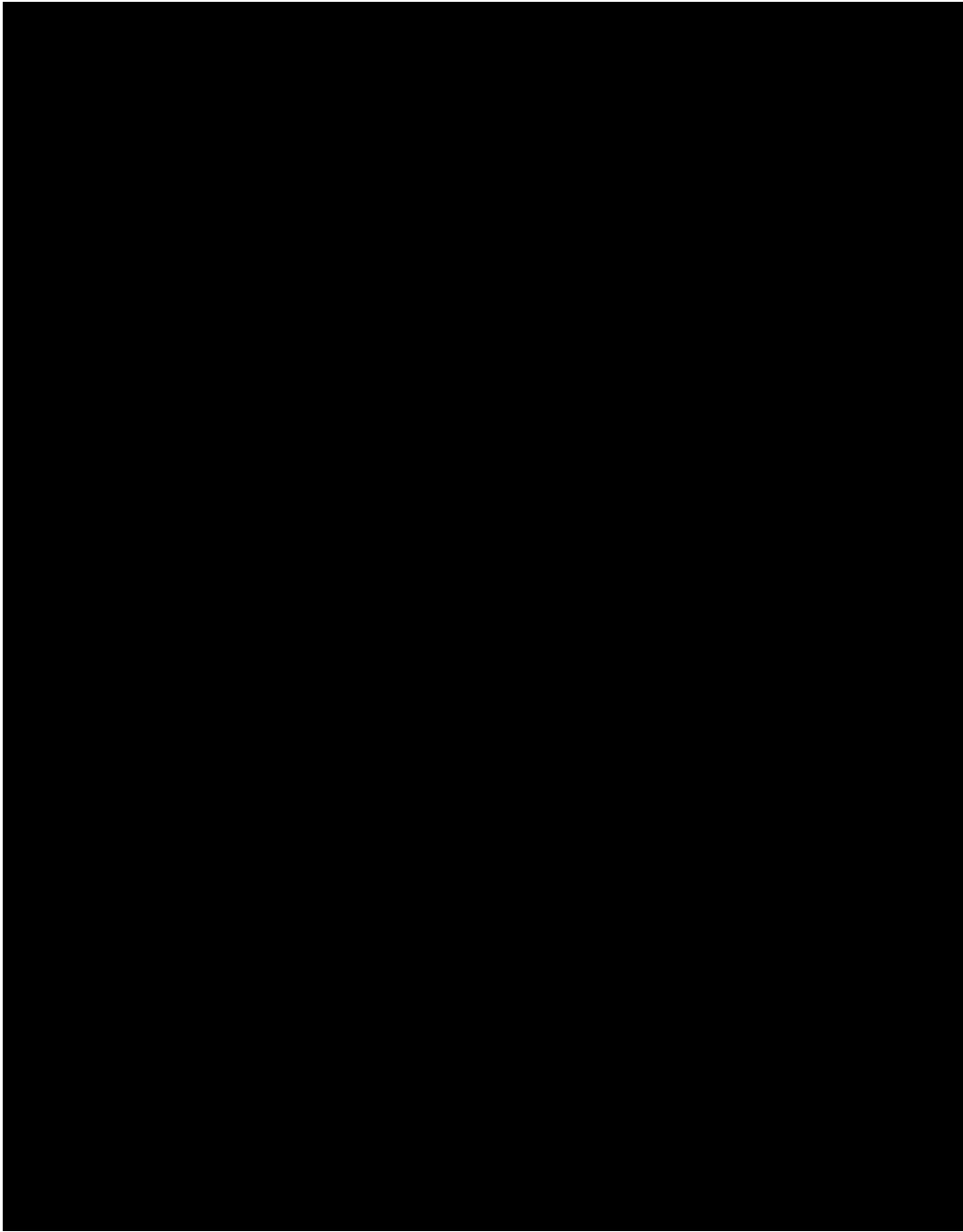
Second, there is a lack of the realizable valuation about the importance rate of the each research subjects because there was no research about the tendency for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ractical affairs in the architecture and urban fields. Also we do not abstract the assignment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ractical affairs very closely because there is no inspection of the real policy or the enterprise process.

Afterwards the research about the demand of the research subjects will include these points and make a multilateral analysis so we can select the research subject which take the lead in the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fields.

**keyword :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research trend, needs for researches**

부록 1.

## 건축도시공간분야 연구동향 분석표 (일부예시)





부록 2.

## 건축도시공간관련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설계자료 통합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과정의 도면작성 기준에 대해 통일화 작업 진행중</li> <li>- 그 과정에서 필요하고 공유할 만한 자료의 통합화 방안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임. Sweet's Catalog의 존재가 얼마나 시간을 아껴주고 건물의 최저 성능보장에 기여하는가</li> </ul>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축이 도시환경 및 공간형성에 미치는 상징적 역할이 중요하고 잠재력 또한 높으나, 공공건축은 각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발주하고 있어 디자인 컨트롤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체제속에 있음</li> <li>- 공공건축을 효율적으로 디자인 관리하고, 도시환경 조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주방식 및 디자인컨트롤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li> </ul>
공공건축물의 복합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사, 구청사, 학교건립 등에어 너무 권위적인 단일용도의 건축개발이 보편적임</li> <li>- 하지만, 공공건축물은 그 지역의 중심성이 강하며, 접근성 이용성이 높아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높음</li> <li>- 예컨대, 학교의 경우 유치원, 체육시설, 노약자시설, 시민복지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지하게 되면 커뮤니티의 중심성 확보와 공동체 생활의 장이 되고, 시설입지가 용이하고 사업비가 저렴함</li> <li>- 이러한 사례를 위해 정부에서도 학교시설 복합이용에 대한 BTL사례를 홍보하고 있으나,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주체간의 관심이 낮은 실정임</li> <li>- 따라서 공공건축물의 복합적 활용과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안함</li> </ul>
공공기관의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 발주와 시행제도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건축설계 수준의 발전에 관해서 시행중인 발주방식이 업무효율과 공정성에 우선 가치를 두는 것은 저해 요인이 됨</li> <li>- 특히 중·소규모 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제도의 개선 문제는 시급한 실정임</li> <li>- 역량있는 건축가들에게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설계, 감리' 통합과 분리되어 있는 건축설비, 실내설계, 가구설계 등 업무를 건축가가 총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유도하려는 시각으로서 이 과제를 연구해야 할 것임</li> </ul>
대기업 브랜드에 의한 주거 상품화를 견제할 수 있는 보급형/고급형 대안 공동주거 양식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적으로 우리의 도시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왔고, 동남아시아나 일본과도 다르게 우리의 산세, 물줄기, 철학, 정서등에 따라 고유하게 발달되어 옴</li> <li>- 고유한 도시구조 속에서 살아온 우리 국민들의 도시 인식의 방식 역시 유럽이나 일본 사람들과는 다름</li> <li>- 자력에 의한 건전하고 충분한 근대화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기존의 도시조직 위에 마구잡이로 올라 앉아버린 우리의 땅과 도시체계, 우리 국민의 도시적 경험과 상이</li> <li>- 도시구조가 가진 경험과 역사의 독자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맞는 도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li> </ul>
대형 공원(large park) 심층 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공원이 도시 재생의 촉매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li> <li>- 그러나 대규모 공원의 도시 공간적·구조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li> <li>- 국외의 다각적 성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그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li> </ul>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p>도로축 및 해안축 중심의 (녹색)경관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 내륙부가 개발압력으로 인해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광역적 차원의 도시경관벨트화를 위해 단계적 실천사업의 추진이 요구됨</li> <li>- 아울러 동시에 연안지역 또한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 지역계획으로 구체적이며 효율적인 경관관리(경관단절축)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해안 경관관리가 가능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사업의 추진이 요구됨</li> <li>- 이를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베이스구축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진단 및 기본구상 수립, 녹색경관의 실질적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군별 LMS 데이터에 의한 분석은 기초단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제한될 수 있어 영상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li> <li>· 1단계 : 국토급의 도로축과 연안축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실시</li> <li>· 2단계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태진단과 단절구간의 조사</li> <li>· 3단계 : 연속적인 녹색경관 창출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수립, 실질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li> </ul> </li> </ul>
<p>도시형 주택유형의 다원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의 획일적 형상을 탈피하고, 도시 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li>- 예를 들어, 단독주택지 마을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공급, 가구형 공동주택 등의 연구를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p>미래의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도시 기법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는 해당 도시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대도시화 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성은 배제된 채, 대동소이한 계획들이 중복되어 있음</li> <li>- 이에 국내 해당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 풍토성 등을 고려한 특화 도시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li> </ul>
<p>보육시설의 건축계획적 기준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5세 이하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은 소규모로서 적은 설계비와 공사비로 인해 설계 개선이나 공사수준 상승이 안 되고 있으므로 국책연구기관에서 건축계획적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 필요</li> </ul>
<p>서울 사대문 안의 역사성 바로잡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양도읍 600년 이래 근대화되는 과정에 서울 중심부의 모습이 심하게 왜곡되어 정체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원래의 제 모습을 찾는 계획이 필요</li> </ul>
<p>우리나라 도시의 형태적 특성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도시의 형태적 기반, 형성기제와 전통, 집합적 경관 등에 대한 문화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강화 및 부정적 특성에 대한 해결책 강구의 기초자료 구축</li> </ul>
<p>통합적 도시공간설계 이론으로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재생사업 도시환경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 도시계획/설계, 조경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적 설계 실천이 필요</li> <li>- post-industrial site, brown field, landfill 등 복합적 문제를 지닌 도시내 부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론바 landscape urbanism 등과 같은 통합적 도시공간 설계 이론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li> </ul>
<p>현대건축에 있어 건축유산의 응용에 관한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편일률적 서구화되는 도심경관</li> <li>- 정체성의 상실</li> <li>- 고유의 건축유산이 살아 숨쉬는 도시, 건축 디자인의 필요성</li> </ul>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Eco-city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 모델을 개발 중</li> <li>- 외국의 사례와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모델의 기초자료 제공</li> </ul>
U-city 모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교부에서 대표적인 R&amp;D사업으로 정보기술을 적용한 도시모델을 개발 중</li> <li>- 해당부처와 협력하여 지원가능한 자료·이론적 배경을 공동연구</li> </ul>
공공디자인 기본설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별도로 시설물의 설계로 통합된 경관이 형성하기 어려워 시설물(공공)과 주위환경에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설계 연구가 필요</li> </ul>
100년 후 서울의 역할과 최첨단 정보화 도시로서의 공간체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정보통신의 발전이 큰 역할을 담당</li> <li>- 서울은 정보통신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세계적 도시</li> <li>- 정보통신의 발달과 그에 따른 거대도시(Metropolitan city of Seoul)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li> </ul>
건축, 도시분야 심의,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도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제도는 합리적, 체계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의가 있으나 각종 심의·평가가 개별적으로 진행</li> <li>- 이를 총체적으로 종합, 전체로서의 합리성을 얻어내는 '총괄시스템'은 매우 빈약한 실정임</li> <li>- 이러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각종 심의·평가 시스템의 운용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설정할 필요</li> </ul>
21세기 새로운 도시주거타입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형 주택으로 정착된 아파트에 의해 형성된 여러 왜곡현상 해소 방안연구</li> <li>※ 새로운 요구, 가족구성 다양화, 도시경관 왜곡, 커뮤니티 붕괴, 전통성 단절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li> </ul>
건축도시와 인문사회과학 통섭을 위한 공론장 연구와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분야의 전문가 지식이 도구적 합리성으로 전이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인문분야의 통찰과 사회과학 분야의 조절수단을 통섭할 수 있는 공론장의 구성과 유지가 필요</li> </ul>
건축물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당수의 중소규모 업무용 건물이 초기간설비를 줄이기 위해 인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설계, 시공되고 있어 건축물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임</li> <li>- 이로 인해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위생, 안전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음</li> <li>-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건축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li> </ul>
건축물의 높이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zoning별 밀도(용적률)조정과 높이 규제가 새로운 검토없이 이상한 평균층수(?) 개념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li> <li>- 한 도시의 경관에 가장 핵심적인 입지별 높이 관리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므로 건축물의 높이 관리계획은 현행 개발사업들에 의해 비추어 볼 때 시급한 실정임</li> </ul>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p>건축사등록원 설립에 따른 건축사 시험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건축사의 국가간 자유교류가 논의되고 WTO회원국의 국내법을 협정에 일치시키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는 1999년에 WTO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li> <li>- 국내 건축사법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며 5년제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새로운 시험제도에 합격하여 등록 및 계속교육을 통해 건축사자격유지 및 갱신 등록하여야 함</li> <li>-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법적으로 관장하는 건축사등록원의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하기에 건축사등록원을 조속히 설립하여야 할 필요</li> <li>- 건설교통부의 주도로 2005년도에 건축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2007년에 이르러 건축사등록원 설립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를 착수</li> <li>- 전체 제도의 개혁방향에서 건축학교인증, 실무수련제도, 건축사등록원 설립방향에 관한 연구는 기초 단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 항목 중의 하나인 건축사시험제도의 개편에 관한 연구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li> <li>- 건축사등록원설립 및 실무수련제도의 개선과 긴밀히 연계된 논의 및 해외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건축사자격제도의 개편방향과 세부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이는 그동안 부족했던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인적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초석이 될 것임</li> </ul>
<p>근대 한국의 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도시 환경의 역사성, 독자성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구축되어야 할 것임</li> </ul>
<p>노후 상업, 공업지역 재개발 활성화 사업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역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으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대한 재개발은 국내에서는 모범적인 사례가 없는 실정임</li> <li>- 하지만 과거 사회적 혼란기에 형성된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은 지역적인 현안과 제로 부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상업지역과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모델이 없는 실정임</li> <li>- 이는 주거와 달리 순환식개발이 가능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자가, 임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특성으로 진척이 이뤄지지 않음</li> <li>- 따라서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연구와 창조적 도심재개발 및 산업기반 활성화를 위한 사업환경 마련이 요구됨</li> </ul>
<p>도시규모에 따른 특성화와 합리적 도시관리 전략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도시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고밀도 주거, 분산정책 등 수도권 모델의 획일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지양하고, 도시의 규모와 밀도에 맞는 특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li> <li>-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 녹지보행환경 네트워크, 기후와 규모에 적합한 도시거리 문화, 도시밀도 관리시스템 등의 규모별 전략이 필요함</li> </ul>
<p>도시설계, 상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백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의 현주소가 참담함. 원래 취지와는 달리 행정편의적인 규제계획이 되고 있으므로 시급한 방향 전환이 요구됨</li> <li>- 지금까지의 경과를 좀 더 냉정하게 밝혀 원래의 취지에 접근하는 개혁의 지향점을 찾길 희망함</li> </ul>
<p>도심공원과 시민건강(의료비지출) 상관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내 지역격차, 자가격차, 빈부계층간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건강악화로 인한 건강(보청)문제 등은 근본적으로 예방치유하기 위한 도심내공원 확보방안 및 건강증진방안</li> </ul>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미래예측과 신기술과학 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 기획·전략 평가에 기회가 되는 미래예측 분야를 초기부터 간과하여 시간함수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 광범위한 시기 및 트렌드 변화를 조직적이고 분석적으로 집적하고 유지할 필요</li> </ul>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 주변의 규제에 의한 개발과의 대립 첨예화</li> <li>- 양각 등 천편일률적인 규제에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불가</li> </ul>
연립주택 현황 및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립주택의 경우 각종 데이터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li> <li>- 아파트를 대체할 주택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로서 기존주택들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하며, 이런 점에 현재 사실상 기초자료조차 없는 연립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li> <li>- 그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li> </ul>
우리나라 도시설계의 발전과정과 그 특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이 되어가는 제도화된 도시설계의 역사적 리뷰, 분석 및 과제 발견</li> <li>- 앞으로의 도시설계에 대한 방향 제시</li> </ul>
인구감소에 따른 서울 수도권 지역의 공간체계 변화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으로 들어선 한국은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농촌의 인구는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li> <li>- 반면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은 인구증가를 겪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인구의 변화가 도시의 공간에 어떠한 변화를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면 미래의 서울 도시에 대한 장래성을 예견할 수 있으리라 전망됨</li> </ul>
장거리 고속교통망의 발달로 인한 지역도시간 계층화의 심화와 부익부빈익빈 현상 강화 효과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우회도로 확충, 고속도로 등의 증가로 지역도시들은 직접 다른 도시와 연결되기보다는 가까운 중심도시를 거쳐서 들어가도록 도시간의 위계구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극단적이 되어가고 있음</li> <li>- 결국, 모든 지역은 각 지역의 중심도시에 부속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새로운 도로나 교통망은 주요 도시 위주로 집중됨</li> <li>- KTX가 생기면서 새마을호가 사라지듯이 우회도로를 통해 지나쳐버리는 지방 소도시들은 자꾸 힘을 잃어감</li> </ul>
전문성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 시행시 전문분야별 컨소시엄 구성이 아니라 업체별 지분참여에 의한 컨소시엄의 구성을 도모하도록 추진됨으로써 전문분야의 육성이 사실상 어려움</li> </ul>
제1기 5개 신도시 리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뒤돌아볼 새도 없이 새로운 도시의 건설에 매진하여 왔으나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 도시의 모습을 거의 갖춘 1차 신도시들의 당초 계획의도, 지표 등과 현실을 비교하고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후일 업무의 좋은 거울이 될 것임</li> </ul>
지속가능한 도시건축방안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 가능 도시계획, 지속 가능한 건축방안 연구</li> <li>※ 유기폐기물/ 무기폐기물의 재생 및 배출 감소 방안 연구</li> </ul>
행정도시 생활권별 개발방향 및 건축전략 도출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은 지역성을 반영해야 하고 기존 도시의 경우 여러 차원의 맥락을 고려하여야 하나, 행정도시는 신규로 건설하는 도시이므로 방향의 설정 및 전략수립은 오히려 명쾌할 수 있음</li> <li>- 행복도시에서의 F20건축전략의 실현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개발방향 및 건축전략 도출연구는 매우 실제적임</li> <li>☞ 행정도시의 정책목표의 하나가 '모델도시'이므로, 동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각급 지자체에서도 동 분야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li> </ul>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가구 및 획지 세분화를 통한 다양한 공동주택 계획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단일 가구에 의해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단조로운 도시 경관, 기존 도시 조직 파괴)</li> <li>- 가구 및 획지 세분화를 통해 다양한 밀도 적용.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가능</li> </ul>
건축환경이 인간행태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환경이 개인의 심성과 행태는 물론 인간관계의 양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실증적·심층적 연구가 필요함</li> <li>- 향후 건축정책의 근거, 기초, 토대가 될 것이다. 심리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로 검토 필요</li> </ul>
공공성 기반의 디자인 의사결정 소통구조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개발 일변도의 근대적 전략을 탈피하여 문화 중심의 미래적 전략이 설정되기 위해 공급자/관리자 중심의 건축도시 디자인으로부터 사용자 중심의 소통에 의한 디자인 의사결정 구조의 개발이 필요함</li> <li>- 다양한 층위의 도시구성원 합의구조 채택, 도시설계와 도시공간 보존활용 등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구조 채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의식의 제고와 도시공동체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li> </ul>
공공성, 공공공간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편에서 좋은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해도 잠시후면 쾌적성은 사라지고 거의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감</li> <li>- 공공공간의 질 저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li> <li>-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공성, 또는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li> </ul>
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수법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대도시들의 도심공동화 현상</li> <li>- 이에 따라 많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 자치단체의 핵심과제로 대두됨</li> <li>-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심을 재활성하는 구체적인 접근(수단, 법, 제도 등)방법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li> </ul>
복지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시설의 유형에는 보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다양하며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만 해도 20가지임</li> <li>- 인구별 또는 행정구역별 설치기준에 외국 평균통계자료 등 접근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자료를 정립할 필요가 큼</li> </ul>
우리나라 대도시 공공영역의 정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대도시의 가로공간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공공성지표를 선정하여 정밀진단함으로써 교통, 토목, 도시, 건축에 관련된 제반 법령 및 기준 개선</li> <li>- 대도시 가로공간 조성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강구함</li> </ul>
저소득 밀집 다세대(다가구) 주거지역의 환경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밀 아파트만을 짓는 재개발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 다른 곳에서 난민촌을 구성하는 것이 상례임</li> <li>- 이들이 흩어질 경우, 이들의 커뮤니티 또한 파괴되어 생계를 위한 정보공유의 장이 사라지게 됨</li> <li>- 따라서 기존의 주거환경 틀을 유지하면서 주택의 개선 및 공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반적인 환경을 개성할 수 있을지를 연구</li> <li>※ 주요 내용 : 저소득층 주거지역 설문조사, 정부지원가능 예산의 검토, 사례 지역 연구를 통한 방안 제시</li> </ul>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개발방안'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은 여전함</li> <li>- 본 연구를 통해 '최소한의 일반화'등으로 국내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정책수립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ul>
한국형 도시마을 조성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도시·신시가지 등의 계획시 활용되는 주거지 계획방법 등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li> <li>- 향후 시가지 관련 계획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모델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실행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건축자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자금 조성을 통해 임대주택 건립 비용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건축자금 조성을 통해 건축(우수)도입</li> </ul>
건축설계자료집성(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건축학회 발행의 건축설계자료집성 닮은 기본 자료집 발간</li> <li>- 일본 것의 복제나 유사본이 아닌 한국형 건축설계자료집을 만들어야 하며 기초자료와 기준이 부실한 것이 한국현대건축의 한계임</li> </ul>
기술인력 시장의 국제화에 대비하는 인력자료구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기술인력 자료의 객관화와 데이터베이스화로 취업의 국제화, 인력수급의 합리화로 인한 경영의 합리화 실현 등 국제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li> </ul>
한국 현대도시공원 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적인 도시내 공공공간인 공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자료 구축이 시급함</li> <li>- 공원의 현대사를 기록하고 그 설계 자료를 집중함으로써 공공공간 설계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발견</li> </ul>
기간시설의 경관 약영향 저감방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전력, 통신 3가지 기간시설이 전국토에 걸쳐 상당한 경관영향을 미치고 있음</li> <li>- 대도시의 경우 전선과 통신망을 도시의 시각적 안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고 농촌의 경우 과도한 전신주와 전선으로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도로확장 및 신설로 농촌경관이 파괴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면서 기간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청됨</li> </ul>
다양한 주거유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지위주의 도시들과는 달리 구릉지, 경사지 등 변화있는 산수체계를 가진 지리 조건상, 입지에 따른 다양한 주거유형이 필요함</li> <li>- 따라서 이러한 주거유형들을 연구 발전시켜 도시 내 자연과 잘 어우러진 경관을 창출할 필요</li> </ul>
도시공간 디테일 매뉴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보도, 건물전면부, 공개공지 등 도시 공공공간의 디테일(접합부, 경사, 포장, 재료, 디멘션, 색채, 패턴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재정적, 시공적으로 뒷받침되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자체 지원 필요</li> </ul>
보육시설의 기획, 설계, 공사관리 총괄가이드 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5세 이하 아동을 보호, 교육하는 보육시설을 전국에 29,000여개가 있으나 기획에서부터 설계 가이드라인, 공사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양적 확산에 비해 건축적 수준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총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li> </ul>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보행자 중심의 가로시설물 공간설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가로를 거닐어보면, 차도에 비해 보도의 폭이 너무 협소하고, 너무나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li> <li>- 기존과 신규조성된 도로에 예외없이 무계획적으로 가로시설물 배치되고 있음 이는 공공건축의 상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도시의 품격을 저해함</li> <li>- 따라서 보행통행량과 주변토지이용을 고려한 적정 보도폭 확보에 대한 대안개발과 공동구 등을 통한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설계 및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함</li> </ul>
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적으로 훼손된 생태계 및 인공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복원 및 관리기술 개발</li> </ul>
온돌문화 총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돌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수한 우리의 고유문화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li> <li>- 온돌의 원류를 과학적, 실증적으로 밝히고,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지역에서 역사적 적용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집대성하는 일은 우리의 주거문화를 재조명하고,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일임</li> <li>- 남북한 공동연구로 추진하여 남북교류에 기여</li> </ul>
주거밀집지역의 양산형 2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관 다양화를 위한 저렴하고 쉽게 사용가능한 미관 재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우리의 공동/집단 주거의 역사속에서 아파트는 비정상적으로 고급화되었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역시 거주자의 사회적 차별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점차 고급화</li> <li>-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저가의 소형 공동주택의 보급이 절실하며 동시에 고급형 아파트를 견제할 고급 공용 주거의 개발도 시급함</li> <li>- 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거의 방식이 타워형 아파트의 난립밖에는 없는 것인지, 국가의 주도로 새로운 대규모 도시 공동주거의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까 연구가 필요함</li> </ul>
중소도시의 친환경적 도시구조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특히, 서울)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이 중소도시의 특성이 무시된 채 적용됨에 따라 기형적 도시구조를 양산하고 있음</li> <li>-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친환경적인 대중교통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구조의 모델이 연구되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바람직한 지향점이 필요함</li> </ul>
지방도시의 역사성 보전을 위한 가로단위 관리지침과 공공디자인 기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 대도시들은 근대시기 혹은 그 이전부터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잡았고 건축도시의 문화적 자원 또한 풍부하였으나 개발과 팽창의 성장과정을 겪으면서 도시의 특성은 사라짐</li> <li>- 가치있는 유형, 무형의 도시 역사성을 보전하고 이를 도시 특성화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가로입면, 가로 및 필지조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로단위 관리지침과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기타 제도적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디자인의 공공성 개념을 확립할 필요</li> </ul>
친환경 재료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시공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재료의 중요성과 그 환경적 성능에 대한 여러 가치는 이미 평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과 현실적인 도입을 가속화하는 노력은, 고정관념과 비용적 한계, 산업구조의 방어막에 부딪혀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li> <li>- 어떻게 현실화하고 성공해 갈 것인지,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사례들을 발굴 연구해야 함</li> </ul>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한국 전통 체험학습관 조성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화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의 일환으로 공간에 대한 것도 대도시화 한 가운데 있음</li> <li>-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는 자국의 전통·정통성에 기반함이 타당함</li> <li>-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 전통체험관에 대한 연구를 1차로, 실행을 2차로 하는 연구가 시급함</li> </ul>
한국적 농촌지역 주택유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대도시지역 아파트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택부족문제 해소 및 토지이용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음</li> <li>-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유형이 필요한데, 대안의 부재로 아파트들이 곳곳에 건설하여 환경파괴와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li> <li>- 따라서 장기 농촌에 적합한 주택유형 개발이 필요함</li> </ul>
행복도시 구축으로 행정기구가 부재한 수도서울의 정치적, 정부적 위상과 그에 따른 현재의 행정 중심지 태평로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중심과 정치의 중심이 분리된 수도서울, 향후 총리는 행정도시세, 국회와 대통령은 서울에, 수도서울을 정치와 행정중심의 도시로부터, 이전된 정부기관의 자리에 새로운 도시공간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경제와 문화의 매력도시로 만들면 어떨까?</li> <li>- 이를 위해 어떻게 매력적인 공간을 구축할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li> </ul>
21세기 한국의 건축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차원은 물론 지자체별 건축정책은 시대적 특성과 가치관을 반영하여야 함</li> <li>- 정책비전과 전략은 결국 제도화 등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동 부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li> <li>- 연구과정에서 국내 건축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는 한편 담론으로 형성 시킴으로써 건축적 사유에 대한 일반인/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얻고 한국의 건축계가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li> </ul>
개발공사의 사업발전 방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개발 공사들은 신도시 조성을 통해 성장</li> <li>- 신도시 수요와 별개로 자체 유치를 위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개발공사들이 더 이상 신도시를 만들지 않고도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li> </ul>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건교부, 문광부)협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문화 진흥의 주관부처와 관련 양 부처간 다름이 있는바, 양자의 특징을 살리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함</li> </ul>
건축직 공무원의 전문적 행정역량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직 공무원, 특히 지방 행정기관의 건축직 공무원은 현장과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전문적인 행정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도시공간의 정책에 있어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li> <li>- 이는 개개인 전문역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민원업무와 인원 부족이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li> <li>- 업무의 성격과 절대량 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건축직 공무원의 전문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관련 행정의 효율화의 토대가 될 것임</li> </ul>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기성시가지 건축물 재고의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외 신개발에 따른 기성시가지(도심부분) 쇠퇴</li> <li>- 전면적인 철거재개발의 한계</li> <li>- 그러면 나머지 기존 건축물+주거들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li> </ul>
남북통일과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복합도시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남북 통일 및 인구 감소를 가정할 때 국가의 행정 중심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li> </ul>
도시 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장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도시 재생 또는 뉴타운이란 명칭 아래 기존의 많은 저밀도 주거지를 고층 아파트화 하고 있음</li> <li>-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도시주거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미래의 새로운 주거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하게 될 것임</li> <li>-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문화환경을 평가하고,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li> <li>※ 주요 내용 : 문화환경에 대한 정의 및 평가방법, 보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화 방안</li> </ul>
도시생태환경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환경의 수준 제고를 위한 생태환경 변화 감시 및 식생성장,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li> </ul>
도시재생을 위한 방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특히 도심재생)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령 일본의 도심활성화3법과 같은...)</li> <li>- 도시재생 방안(정체성을 갖는 도시재생 방안/ 참여형 재생 방안)</li> </ul>
복합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도시공간구성을 통해 도시활력 창출을 위한 실행적 방법의 검토가 요구됨</li> <li>-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역세권 개발 및 정비 또는 도시전략지구 개발 등에 도입할 수 있음</li> <li>- 도시활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서 생활권 중심지 등에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함</li> </ul>
우리나라 장기도시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은 국토에서 집약적으로 단기에 발전한 우리나라 도시들의 향후 발전방향 및 정부의 지원방향</li> </ul>
우리의 도시구조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도시조직과 도시배열, 도로분포와 공공공간 입지체계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밀집지역은 현재 붉은 벽돌의 2-3층 집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li> <li>- 아파트 단지 외에 저층 다세대/다가구 주택단지의 다양한 공간구조와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지계획, 도로계획이 필요함</li> <li>- 또한 시민들이 쉽고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붉은 벽돌 이외의 양산재료의 보급이 필요함</li> </ul>
주거지·주거계획의 패러다임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주거지·주거계획이 지나치게 기능적, 기술적 관행에 의해 이루어져 스스로의 사회·경제·환경·주거문화와 공간 환경 등을 고려한 주거지·주거계획의 중·장기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li> <li>- 과거 주거지·주거계획의 흐름을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사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지향점, 정책적 추진방향을 모색</li> </ul>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현실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부여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또한 승인권자의 성향·지자체의 행정형태 등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인센티브 운용 범위가 다름</li> <li>- 그러므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및 적용기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li> <li>-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부여되는 인센티브의 유형을 행·재정 측면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li> </ul>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을 위한 공공건축 및 건조환경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도시의 공공 건조환경의 설계는 공공장소에 대한 건축 및 조경설계를 포함하여 시각디자인, 색채계획, 인간공학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분석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li> <li>- 선진국가들은 이러한 공공건조환경의 설계가 개별 설계자들의 재능과 윤리적 의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해하고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보장하고 있음</li> <li>- 공공건조환경에 대한 이해가 공공공간에 대한 도시, 건축적 관점보다는 간판, 휴지통,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물에 한정된 산업디자인적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와 공공디자인학회에서 주도하는 공공디자인의 방향도 이와 같은 협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li> <li>- 따라서 향후 도시 및 건축적 관점에서 공공건축과 건조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수립,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과 의의가 지극히 중요함</li> </ul>
urban sprawl 현상과 주거공간의 밀도(집적도)의 조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주거면적의 증대와 도시의 외연적 확대경향하에서 주거밀도(녹지율 등)의 적정화 및 추진방안</li> </ul>
건축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 한국에서 과연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분분</li> <li>- 공공성 확보의 한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치 제도개선 수준 및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li>e.g.) 프라이버시, 일조권, 보행권의 범위 및 한계, 공공 공지의 형태 및 비율, 도시구성원으로서 건축물이 갖춰야 할 소양(형태/ 색채/ 광고물/ 높이/ 성능 등)의 한계,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를 활용한 공공성 확보방안 등</li> </ul>
고령화시대의 도시 공간개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 전체, 아니면 일부 지역의 인구 고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li> <li>- 고령인구의 필요시설과 시설기준은 젊음과 달라야 할 것임</li> <li>※ 주요 내용 : 고령인구가 필요로 하는 환경특성 연구,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계획기준의 재평가, 실천전략 강구</li> </ul>
공공건축프로그램 구축 및 평가체계구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축디자인의 컨트롤 또는 개선방안이 지속적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 지원·관리 체제의 편성이 반드시 필요함</li> <li>- 기능별 프로그램의 작성 및 제안, 상황에 따른 유연성 있는 대응방안 등을 전제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개별사업의 지침으로 활용</li> <li>- 개발사업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서 공공건축의 경우에는 사후평가를 시행, 차기 프로젝트의 환류체계 구축</li> </ul>
공동주택의 저층부분(건물연접공간 포함)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국 반복적이고 경직된 공동주택지를 다양화, 생동감 있게 만드는 데에는 저층부+연립공간(외부)에 대한 사려 깊은 설계가 필요함</li> <li>- 왜 그런 것이 우리는 안 되는가? 그 장애물은 무엇인가?</li> </ul>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삶의 변화와 이를 수용하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통신, IT, 의학 같은 기술 발전은 우리 삶의 양식과 소통의 거리, 생명의 연장 등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 건축과 도시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사회문화적 변화도 포함)</li> </ul>
노령화 시대, 지방노인 공공시설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속화되는 노령화 시대, 지방노인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폭넓게 노인 생활의 질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li> <li>- 단순한 마을 경로당으로 대변되는 현상황을 진단하고 지역문화에 부합되는 새로운 노인 공공문화 시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li> </ul>
노인복지시설의 기획, 설계, 공사 관리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화 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법적, 행정적 시설 종류는 증가하고 있음</li> <li>- 20여 가지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설계, 공사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총괄적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li> </ul>
새로운 신도시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간에 많은 신도시들이 계획, 조성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족도시가 아닌 베드 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음</li> <li>- 따라서, 실질적인 신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함</li> </ul>
안전과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거주지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이 중요함</li> </ul>
역사도시 보존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와 같은 대표적 역사도시에 대한 보존 마스터플랜 부재</li> <li>-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압력에 취약하므로 역사경관 부재</li> </ul>
인구감소 도시의 공간개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의 중소도시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성장에 그 기초를 두고 있어, 이상과 현실이 크게 괴리되고 있음</li> <li>- 따라서 이제는 인구감소를 기정사실화 하고, 남게 되는 주거와 공공시설(학교 등) 등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지를 연구</li> <li>※ 주요 내용 : 인구감소 도시의 파악과 전망, 사례도시를 선정하고, 주거와 공공시설의 수요공급을 예측, 남는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도시 전체로서의 삶의 질과 쾌적성을 높이는 전략제시</li> </ul>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시공간구조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li> <li>- 특히,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li> </ul>
지방도시 도시건축물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도시는 양적팽창방식의 한계에 직면해 있지만, 현행 포괄적인 건축관련 법규로는 관리되지 않은 개발논리의 확산을 컨트롤하기 어려움</li> <li>- 현대 지방도시가 처한 도시건축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 건축환경 및 새로 형성될 건조환경 모두에 대해 지방도시 특성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li> <li>- 이를 통해 건설환경의 수준별 사회적 여건조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li> </ul>
풍납토성 보존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과 보존의 첨예한 대립</li> <li>- 규제 및 생활 불편</li> <li>- 대안없는 보존 주장</li> <li>-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의 필요</li> </ul>